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3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目 次

I. 머리말	5
II. 調査地域の 位置와 沿革	7
1. 位置와 自然環境	7
2. 調査地域 沿革	10
III. 調査内容	16
1. 遺構	16
2. 自然文化財	18
3. 收拾遺物	19
4. 周邊遺蹟	25
IV. 맺음말 - 調査團意見 -	30
〈參考文獻〉	31
〈附 錄〉	
□ 지표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61
□ 지표조사 지도위원회의 결과보고	77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8
[도면 2] 주변유적 분포도	9
[도면 3] 조사지역 건축계획도	11
[도면 4] 조사지역 현황도	12
[도면 5] 조사지역 지적도	13
[도면 6] 조사지역내 덕수궁 추정 배치도(김종현 교수 자료제공)	15
[도면 7] 조사지역내 유구·자연문화재 현황도	17
[도면 8] 수습유물 1 (와전류)	20
[도면 9] 수습유물 2 (와전류)	22
[도면 10] 수습유물 3 (도자기류)	24

사 진 목 차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①현 덕수궁 부근, ②옛 경기여고 부근	35
[사진 2] 옛 경기여고 전경 ① 교사, ② 내부 및 회화나무	36
[사진 3] 미국 대사관 관저 및 부속건물지역 전경 ① 부대사관저, ② 부속건물	37
[사진 4] 조사지역 전경 ① 고종황제 아관파천길, ② 유물노출상태	38
[사진 5] 문지 전경 ① 북쪽에서, ② 남쪽에서	39
[사진 6] 미국 대사관 관저 주변 석축 전경 ① 북쪽 장대석 석축, ② 서쪽 사고석 석축	40
[사진 7] 조사지역내 석재 전경 ① 추정 초석, ② 장대석	41
[사진 8] 조사지역내 노거수 전경 ① 옛 경기여고 교정내 회화나무, ② 버드나무	42
[사진 9] 수습유물 1(①~③ 기와편)	43
[사진 10] 수습유물 2(①~③ 기와편)	44
[사진 11] 수습유물 3(① 전편, ②·③ 도기편)	45
[사진 12] 수습유물 4(①·② 도기편, ③·④ 자기편)	46
[사진 13] 덕수궁 ① 대한문 전경, ② 함녕전 전경	47
[사진 14] 덕수궁 중화문 ① 전경, ② 측면	48
[사진 15] 덕수궁 중화전 ① 원경, ② 근경	49
[사진 16] 덕수궁 ① 석조전 전경, ② 정관헌 전경	50
[사진 17] 덕수궁 석어당 ① 전경, ② 측면	51
[사진 18] 덕수궁 ① 준명당 전경, ② 즉조당 전경	52
[사진 19] 주변유적 ① 구러시아공사관, ② 정동교회	53
[사진 20] 주변유적 ① 구세군중앙회관, ② 중명전	54
[사진 21] ①·② 현장조사 전경	55
[사진 22] ①·② 지도위원회의 광경	56
[사진 23] ①·② 지도위원회의 광경	57

I. 머리말

慶運宮(德壽宮)은 조선의 正宮인 景福宮을 비롯한 昌德宮·昌慶宮·慶熙宮 등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의 하나이다. 이 경운궁이 위치한 자리는 원래 조선 초기에 태조의 계비였던 康氏씨의 무덤인 貞陵이 있었으나 태종때 옮겨졌고, 그 자리에 월산대군의 私邸가 지어졌다. 임진왜란때 의주로 몽진을 떠났던 선조가 還都하였으나 경복궁이 소실되어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자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였던 이곳에 임시로 行宮을 설치하여 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하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 궁에는 궁궐다운 건물도 없었고, 왕실에서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운궁이 역사무대에 전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고종 말기에 조선왕조가 열강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되고, 일본 낭인들에 의한 명성황후의 시해로 위기의식을 느낀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부터이다. 1907년 고종은 순종에게 양위를 하였고 순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삼았으며, 이때 경운궁의 宮號를 덕수궁(이하 덕수궁이라 함)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덕수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궁궐을 조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의 배치 등에 있어 조선시대 다른 궁궐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덕수궁은 고종 말년에 왕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비로소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영국·미국·러시아의 공관터를 할애해 주면서 덕수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궁내에 서양식 건물이 건립되고 도로가 새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고종이 거처하던 당시 덕수궁의 규모는 서쪽이 현재 미국 대사관 남쪽 길을 따라 전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언덕 일대와 신문로 일대에 해당되고, 북쪽은 영국 대사관을 거쳐 성공회 성당 앞길을 따라 덕수초등학교 담 위쪽을 지나 신문로에 이르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외교관 숙소·대사관 사무동·해병대 숙소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내 문화유적의 부존여부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는 이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지역은 옛 덕수궁의 영역인 관계로 덕수궁의 역사와 변천, 건축물들의 배치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가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고, 문헌조사가 완료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 사 명 : 중구 정동 (1-39) 문화유적 지표조사
2. 유 적 위 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3. 조 사 면 적 : 43,837㎡(약 13,260평)
4. 조 사 기 간 : 2003. 06. 11~2003. 11. 07.
5. 유 적 성 격 : 조선시대 궁궐 및 건물지

6. 조 사 기 관 :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7. 조사의뢰기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8. 조 사 목 적

조사대상지역은 주한미국 대사관의 관저 및 숙소건립 예정부지로 현 덕수궁에 인접한 곳이므로 부지내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와 분포범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 조사단 구성

연합조사단에서는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단장(공동)	김 정 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윤 세 영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
지도위원	김 병 모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교수
	손 병 헌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 몽 룡	서울대학교 교수
현장조사팀	류 형 균	책임조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남 주	조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김 경 범	조사보조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문헌조사위원회	정 영 호	연구위원장, 단국대학교 박물관장
	김 순 일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이 민 원	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김 종 헌	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신 명 호	연구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 영 화	연구원, 한국역사자료연구소 연구원
	이 경 미	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김 숙 경	연구원, 부산대학교 강사
	서 동 일	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전 해 식	연구원, 배재대학교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연구원
사무처리	이 우 승	사무국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실장

지표조사는 2003년 6월 11일~10월 7일까지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문헌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문헌조사연구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 8일~10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문헌조사연구와 현장조사가 완료된 2003년 10월 24일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3일 현장지도 위원회의를 통해 지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조사 완료후 원고작성 및 도면작업, 편집 등 정리작업은 류형균의 책임하에 현남주·김경범이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김정기·윤세영 단장이 교열·감수하였다.

Ⅱ. 調査地域의 位置와 沿革

1. 位置와 自然環境

조사지역이 위치한 서울시는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서울시의 동쪽은 구리시와 하남시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가 맞닿아 있다. 남쪽은 광명시·안양시·과천시·성남시가 접해 있으며, 북쪽은 의정부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남양주시와 접하고 있다. 동경 126° 45' ~ 127° 11', 북위 37° 25' ~ 37° 41' 에 위치하며, 동서간 거리 36.78km, 남북간 거리 30.3km이다. 면적은 605.40㎢이고, 인구는 1,028만 6,503명이며 인구밀도는 약 17,000/㎢이다. 행정구역은 22개구 475개동이고, 시청 소재지는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다.(1988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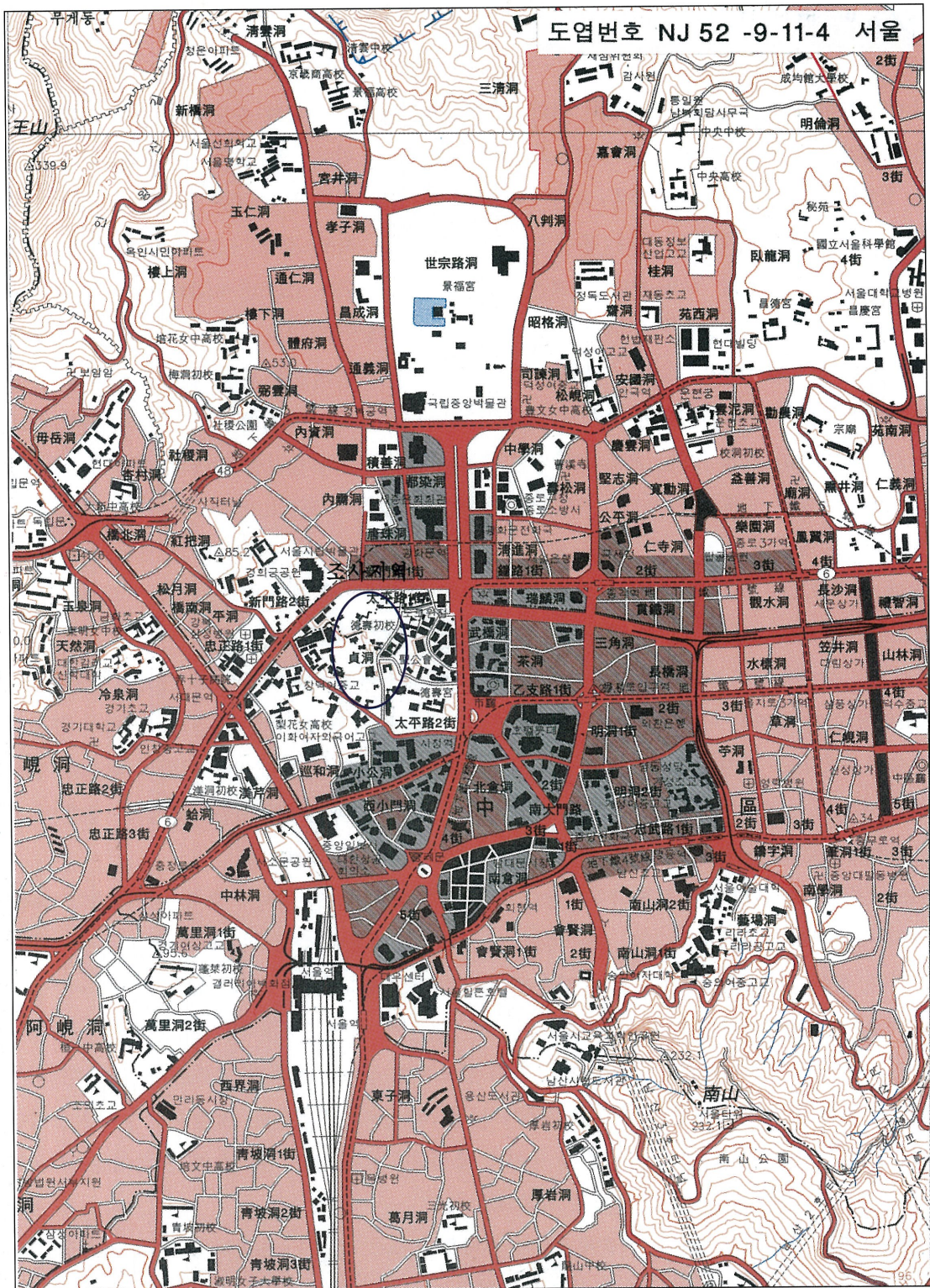
한강 하류에 위치한 서울의 기반암은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지형과 토양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조선왕조 遷都 당시 서울의 지형은 북쪽에 白嶽山(342m), 남쪽에 木覓山(262m), 동쪽에 駱駝山(111m), 서쪽에 仁旺山(338m) 등의 內四山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며,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都城이 축조되었다. 또한 그 외곽은 북쪽에 北漢山(837m), 서쪽에 德陽山(125m), 남쪽에 冠岳山(629m), 동쪽에 龍馬峰(348m) 등의 外四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밖에도 북쪽에는 道峰山(716m)·인수봉(811m) 등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九陵山(178m)·水落山(638m) 등이 경기도와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산들은 화강암으로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화강암 특유의 지형을 하고 있다.

漢江은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여 서울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蛇行을 하면서 옥수·노량진 등은 절벽을 이루고 있으나 반포·행주·신평 등 퇴적사면부는 넓은 범람원을 이루고, 유역 중앙에 뚝섬·여의도·난지도 등 河中島를 형성하였다. 강북지역은 淸溪川 외에 서쪽의 佛光川·砂川 등과 동쪽의 中浪川·王宿川 등이 흘러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강남지역은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로 흐르는 安養川·炭川·良才川 등이 좁은 충적지를 이루며 한강으로 유입된다.

기후는 남부지방의 난대성 기후와 북부지방의 한대성 기후의 중간인 점이적 특색을 나타낸다. 연평균기온은 11.6℃이며, 1월 평균기온 -3.5℃, 8월 평균기온 25.3℃로 겨울이 춥고 여름은 더운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겨울에는 동해안 보다 기온이 2~3℃ 정도 낮다. 연강수량은 1,364mm이고 여름철에 집중되며, 이로 인해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내려 한강이 범람하여 심한 수해를 입기도 한다.

근래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지형이 변형되거나 주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식생이 파괴되어 삼림은 극히 빈약하다. 수종은 주로 소나무이며,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개암나무 등이 분포한다. 최근 육림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으로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녹지공간의 부족은 인구·공해·교통 등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주한미국 대사관 신축예정부지는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현 덕수궁과 북서쪽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북서쪽에 연접하여 러시아 공사관(사적 제253호), 북동쪽으로 구세군 중앙회관(서울시 기념물 20호), 남쪽으로 정동교회(사적 제256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1/25,000)



[도면 2] 주변유적 분포도

호)·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미국 공사관(서울시 유형문화재 132호), 동쪽으로 원구단(사적 제157호) 등 문화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 외곽으로는 북쪽에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사적 제117호)과 북서쪽에 경희궁(사적 제271호)·사직단(사적 제121호)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기존에 건립된 빌딩과 최근에 신축된 빌딩들로 인해 주변이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고립된 형태이다.

2. 調査地域 沿革¹⁾

德壽宮은 사적 제124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5大宮의 하나이다. 원래 조선 선조때 行宮으로 설치하였던 宮室을 광해군때 ‘慶運宮’으로 조영한 궁궐이며, 이후 明禮宮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대한제국기 고종의 퇴위후 덕수궁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덕수궁에서는 16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300여년간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었는데 선조의 승하와 광해군의 즉위, 인목대비의 유폐사건과 인조반정 등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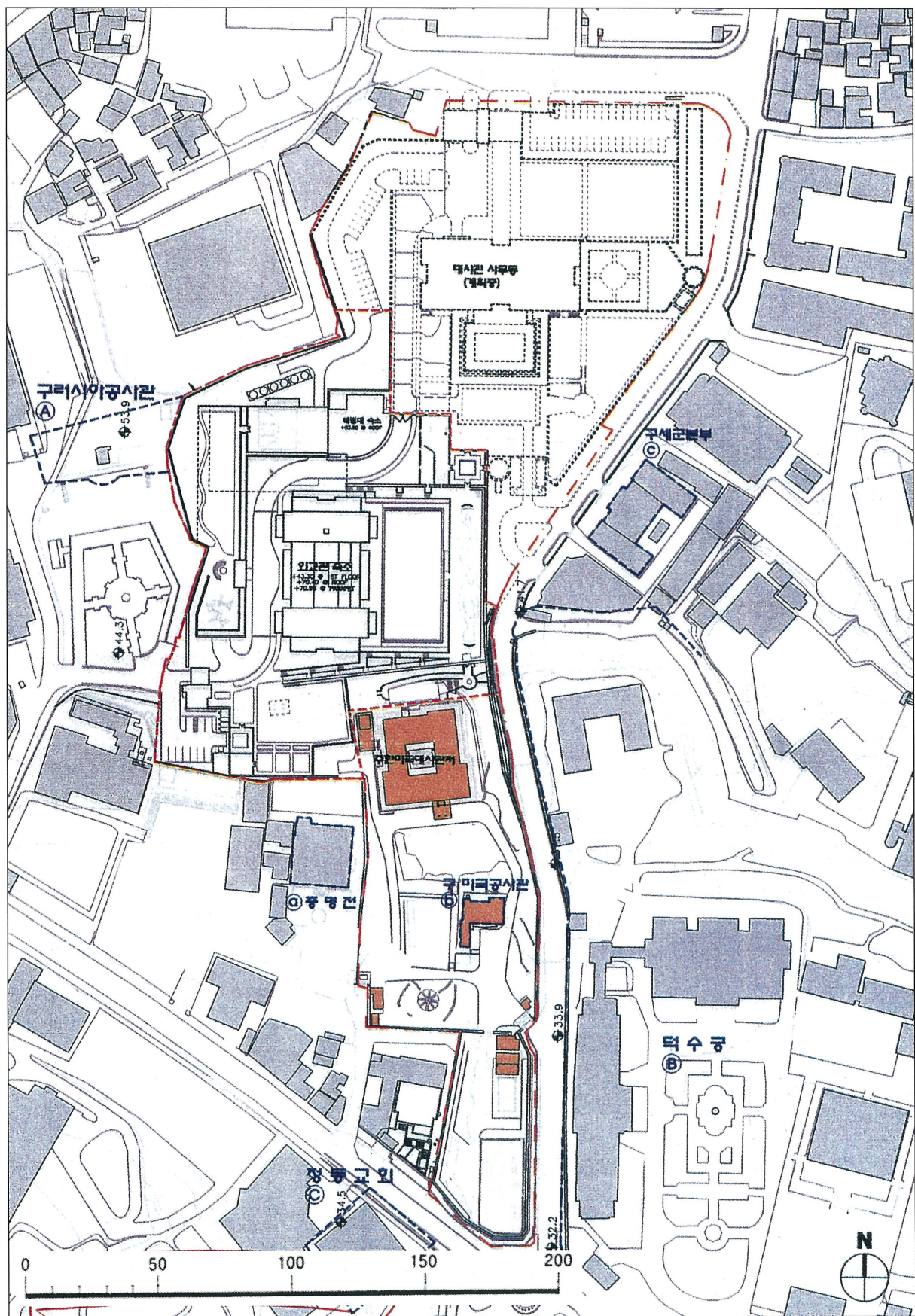
덕수궁은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순종황제의 즉위 등 한국현대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덕수궁의 넓었던 옛 규모는 줄어들었으며, 일제는 수십의 전·각 부속건물들을 훼손시켜 오늘의 협소한 모습으로 변형시켰다. 문헌조사 결과 옛 경기여고 자리로 알려진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지역은 덕수궁 영역중 영성문 대궐구역으로 璿源殿·思成堂·興德殿·興福殿 등이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원전과 사성당은 역대 임금의 御眞을 모셨던 眞殿이었고, 흥덕전과 흥복전은 국장 이전의 혼백과 시신을 모셨던 殯殿, 국장 이후 분묘 이전까지 신주를 모셨던 魂殿으로 사용하였던 곳이어서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국왕이 궁궐을 옮길 때는 반드시 거쳐하는 대궐로 어진을 옮겼는데, 이러한 사실은 역대 왕의 어진을 통해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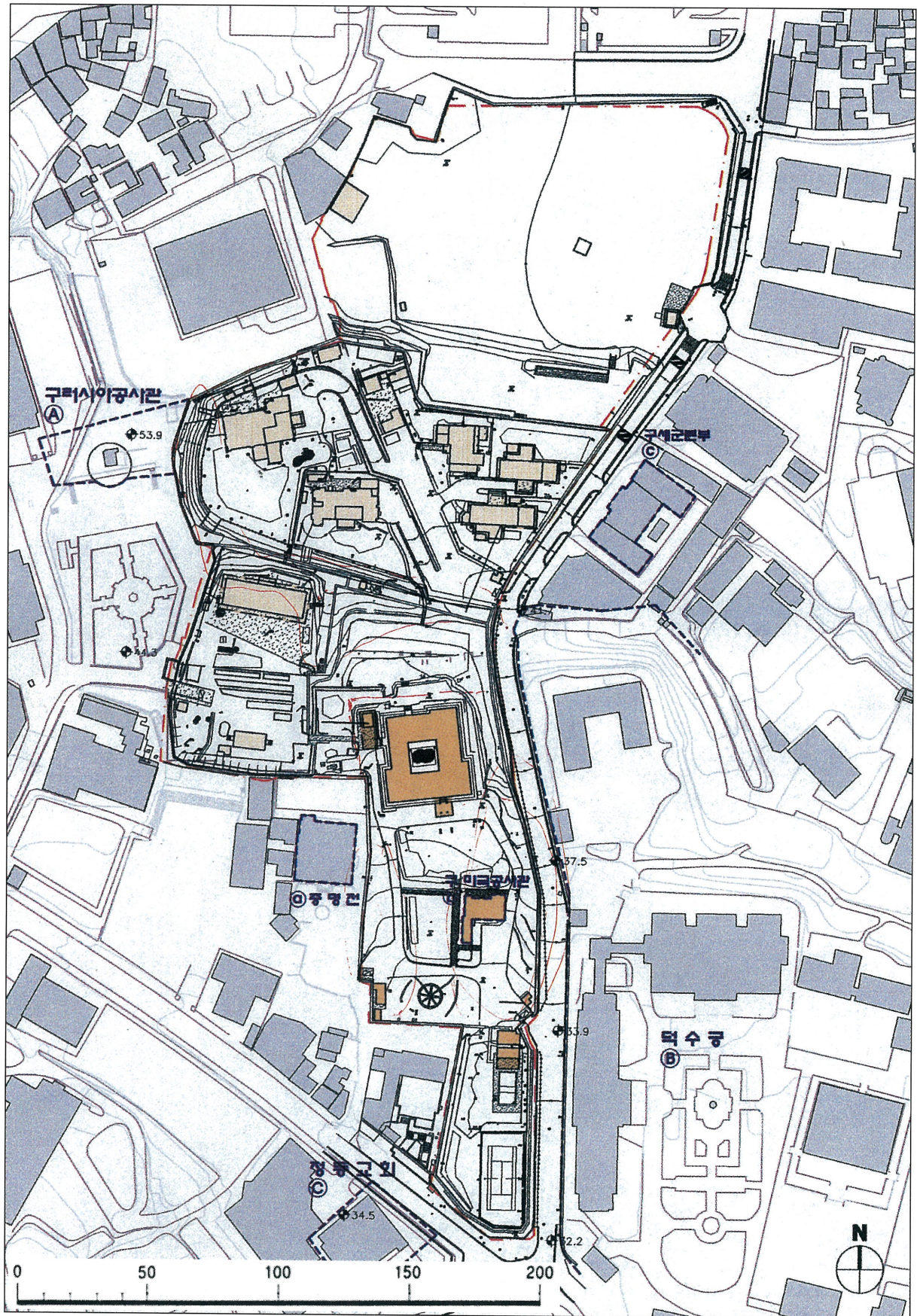
선원전은 고종이 덕수궁으로 移御한 직후 가장 먼저 신축하여 진전으로 삼았으나, 1900년 화재로 인해 전각과 7室의 어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고종은 선원전 중건과 새 영정의 模寫를 지시하였다. 1901년 고종은 선원전 중건과 더불어 선원전·사성당 등의 진전과 흥덕전·흥복전·의효전 등의 빈전과 혼전을 영성문 대궐 영역안에 넣어 궁궐내의 다른 영역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신성스러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렇듯 영성문 대궐구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 진전과 빈전, 혼전으로 사용하였던 것은 고종이 이 구역을 의도적으로 신성한 영역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영역은 1919년 고종황제의 下世後 즉시 일본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훼손당하게 되었다. 고종의 1주기 직후 선원전 영역이 해체되었으니 모든 전각들이 훼손 혹은 옮겨져서 둘 한 개까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1920년 4월에 선원전 구역의 부지가 조선은행·식산은행·경성일보사에 매각되어 5월에 선원전 구역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1919년 해체된 영성문 대궐구역은 1920년에 선원전 터 바로 뒤에 해인사 중앙포교소가 들어섰고, 이 지역은 1934년 조선저축은행이 인수하여 사택을 지었다. 1922년 의효전 자리에는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지금의 덕수초등학교)가 들어섰고, 흥덕전과 흥복전 자리에는 경성제일공립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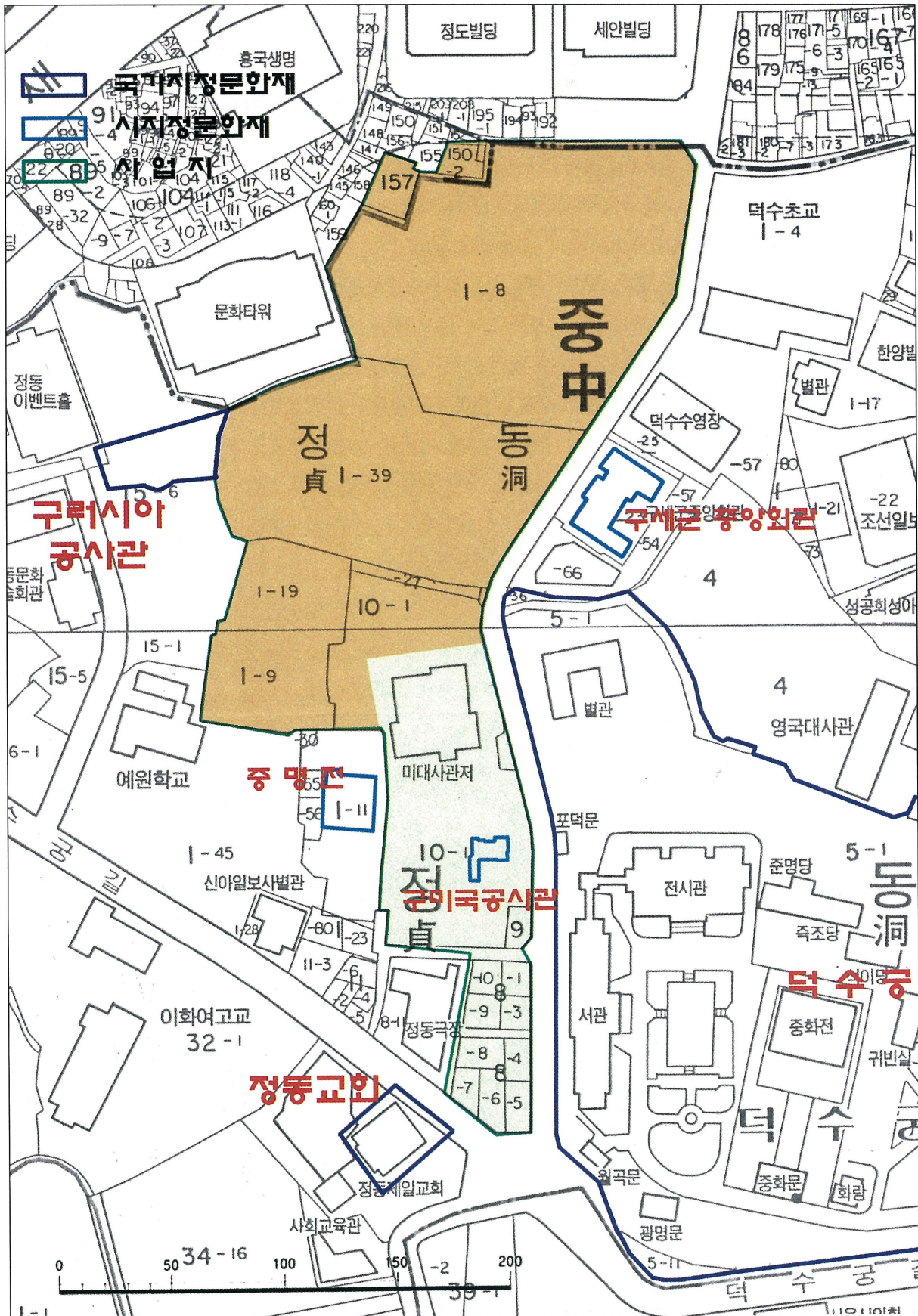
1) 덕수궁 연혁은 덕수궁 문헌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덕수궁 문헌조사보고서 참조.



[도면 3] 조사지역 건축계획도



[도면 4] 조사지역 현황도



[도면 5] 조사지역 지적도

학교(옛 경기여고)가 자리잡게 되었다. 1945년 경기여고는 재동교사에서 정동교사로 이전하였고, 1965년 2월 9일 화재로 본관·부속건물 등 29개 校舎가 全燒되었으나, 12월 30일 본관 5층 30개 교실을 낙성하여 신축하였다. 이후 1988년 3월 정동교사에서 개포동교사로 移建하였다.

1945년 10월부터 경기여고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한·미 양해각서에 의하여 1988년 개포동 부지로 이전한 후 지금은 미국 소유의 공터로 남아있다. 등기부에 의하면 흥덕전과 흥복전 구역인 서울시 중구 정동 1-8번지는 1990년 7월 3일 교환에 의해 미국의 소유가 되었으며, 선원전 구역인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는 1948년 9월 20일 매매에 의하여 미국 소유가 되었다.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해방정국의 격동기로서 덕수궁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UN 한국위원회 등이 열려 다시 한번 각 국의 외교력이 결집되는 공간이 되었다. 그후 주변을 정리하며 1984년 중화전 정전을 복구하고 금천교를 복원하여 1992년에 궁중유물전시관을 열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조선왕궁 수문장 교대식도 진행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중구 정동 1-8, 1-39번지 일대 지역을 살펴본 문헌조사 결과 이곳에는 대한제국의 정궁인 덕수궁의 진전으로서 선원전과 사성당, 흥덕전과 흥복전 등이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영성문 대궐 구역으로 불리우며, 조선과 대한제국을 연결시켜 주는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진전·빈전·혼전으로 사용되었던 신성 공간이었다.

Ⅲ. 調査内容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로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덕수궁이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인접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250m 정도의 거리에 경희궁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을 포함한 현 덕수궁 외곽지역은 지난 19세기 말엽부터 서구 열강들의 공사관 부지 등으로 할양된 이래, 일제강점기에는 영역을 더욱 잠식당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축소되었다.

조사지역은 크게 현재 미국 대사관 관저와 그에 따른 부속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옛 경기여고가 위치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대사관 관저와 부속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미 20세기초 이래 미국 공사관을 비롯해 각종 건축물로 옛 덕수궁의 경내가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옛 경기여고 지역은 1988년 경기여고의 개포동 이전 이후 방치된 상태이다.

현장조사는 우선 미국 대사관 관저와 부속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옛 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에 대한 조사와 덕수궁내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문지 1개소와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장대석 및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노거수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지역에서 수습된 유물은 와전류와 도자기류 등이 있다.

1. 遺構

1) 門址(圖面 7, 寫眞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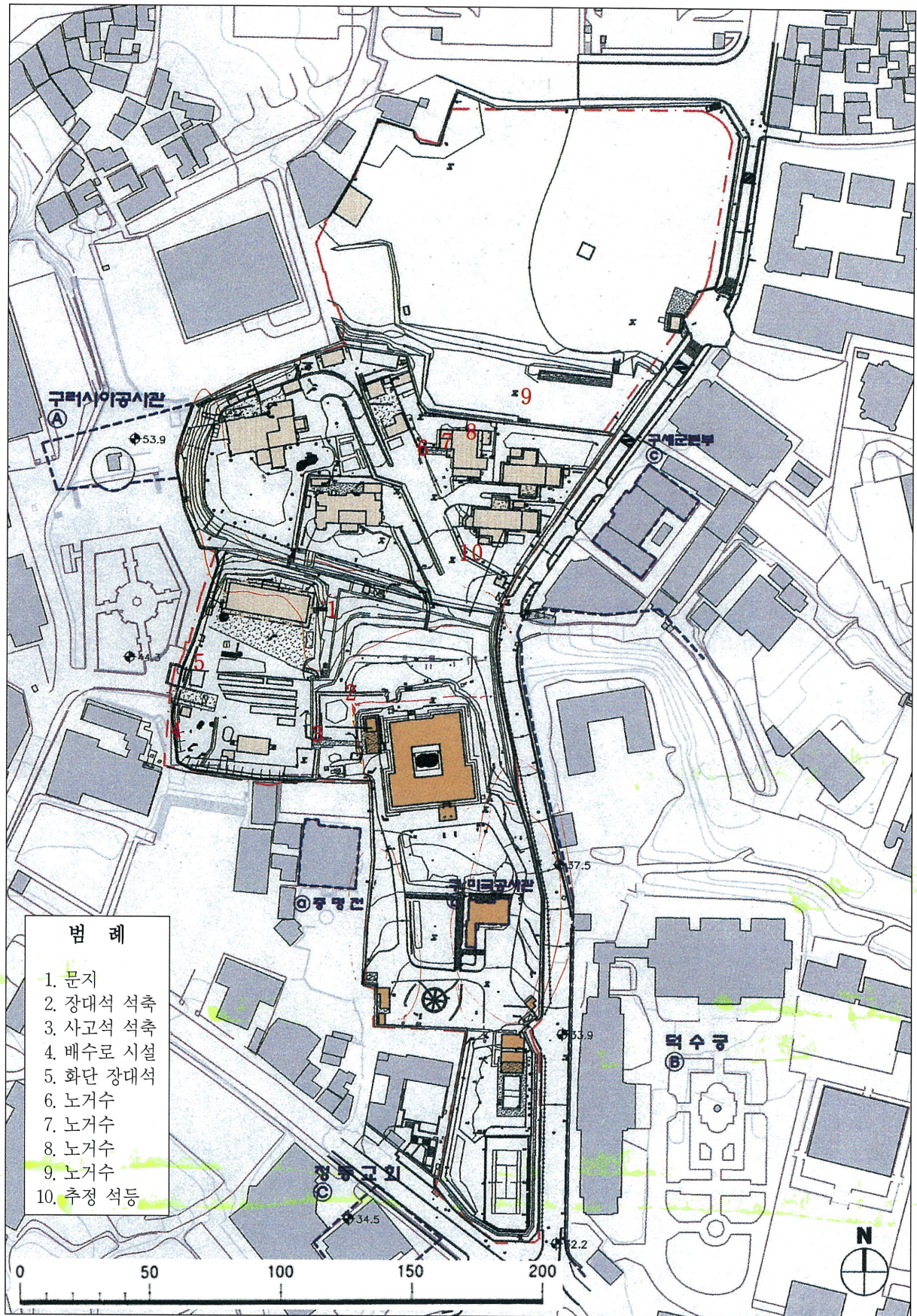
문지는 현 미국 대사관 관저의 북서쪽 담장 외곽에서 확인되었는데, 미국 대사관 관저에서 서쪽 출입문을 나와 부대사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초석으로 보이는 40×40cm 내외의 방형 석재들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어 주변의 낙엽 등을 청소하고 조사를 진행한 바 문지임이 확인되었다. 초석의 배치상태와 문으로 오르내리는 전면의 계단시설로 미루어 남향의 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있는 문지 초석의 간격으로 보아 문의 너비는 190cm 정도로 추정된다. 문지의 남쪽으로 문을 오르내리는 계단시설이 2개소 정도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붕괴되어 하부 2~3단 정도의 석축만이 남아있다. 문지의 서쪽 편에 접해 담장시설의 기초부분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잔존부가 너무 적어 정확한 현상은 파악할 수 없었다.

초석을 제외하고는 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물들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기와편과 토기편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문지 주변의 소로는 아관파천 당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통행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지와 러시아 공사관과의 거리는 약 150m 정도이다.

2) 石築(圖面 7, 寫眞 6)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였던 장대석 및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시설이 3개소 정도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경



[도면 7] 조사지역내 유구·자연문화재 현황도

사면을 정지하기 위한 축대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석축은 현 대사관저의 북쪽과 서쪽을 따라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시설로 ‘ㄱ’ 형태이다.

북쪽의 석축은 길이 100cm, 두께 20cm 내외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현재 3~4단 정도 남아 있다. 서쪽 석축은 사고석을 이용하여 각 층마다 3단 정도 축조한 2층의 시설이 조사되었다.

대사관저의 외곽을 따라 조성된 배수로의 상면에서도 치석된 장대석 석재들이 확인되었다. 배수로 시설은 약 4단 정도로 축조되었는데 아래에서부터 1~3단까지는 시멘트 벽돌을 사용한 반면, 가장 위쪽에는 약 65×27×34cm 크기의 화강암 장대석을 재사용하였다.

3) 其他(圖面 7, 寫眞 7)

조사지역내에서 덕수궁의 건축부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석 및 장대석들이 조사되었다. 이 석재들은 대부분 치석된 화강암으로 부대사 관저를 비롯하여 부속건물 주변 화단시설의 부재로 이용되거나 정원의 석재로 방치된 상태이다.

원형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는 미국 대사관 관저의 부속건물 주위의 화단에서 확인되었는데 지름 30cm, 높이 50cm 정도의 크기이다. 초석 주변에서는 일본식 석등 1기가 확인되었고, 석등의 높이는 1m 내외이다.

장대석들은 대개 120×25×20cm 정도의 크기로서 대부분 화단의 경계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화단은 대부분 현재 통행로 주변과 건물의 정원에 조성되어 있다.

2. 自然文化財

조사지역내에는 상당수의 노거수가 식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나무를 비롯한 노거수 5그루가 확인되었다. 옛 선원전지로 추정되는 대사관저 부속건물 주위에서 은행나무 등 4그루가 조사되었으며, 옛 경기여고 교정에 회화나무 1그루가 자라고 있다.

1) 老巨樹 1(圖面 7)

부대사 관저의 동쪽에 위치한 부속건물 입구에 2그루의 은행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주위의 나무들에 비해 수령이 오래되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목의 둘레 등으로 미루어 북쪽에 위치한 은행나무의 수령이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老巨樹 2(圖面 7, 寫眞 8-②)

노거수1에 해당하는 은행나무 2그루의 동쪽 편에 위치하는데 수종은 버드나무로 추정된다.

3) 老巨樹 3(圖面 7)

현 미국 대사관 관저 및 부속건물 지역과 옛 경기여고 교정 사이의 담장부근에서 확인되었다. 식생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4) 老巨樹 4(圖面 7, 寫眞 8-①)

옛 경기여고 교정의 한 가운데에 회화나무 1그루가 위치한다. 수종은 회화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식생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收拾遺物

이번 지표조사에서 유물의 산포 빈도는 조사지역 전역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며 조선시대 이후의 기와·도기·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 가운데 와전류가 대부분이며, 도기·자기류는 거의 현 미국 대사관 관저 및 부속건물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습되었고, 옛 경기여고 교정 일대는 유물의 수습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와전류는 대부분 片의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모두 평와류로 막새 및 명문와는 수습되지 않았다. 수습된 기와류의 속성을 살펴보면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며 문양은 파도문·무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측면의 분할흔이 미약한 점, 바탕흙에 석립이 많이 들어간 점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무문의 塼片 1점이 수습되었다.

도자기류는 기와류에 비해 수습된 유물의 양이 적은 편이다. 도기류는 대부분 회청색 경질의 생활 용기편으로 내외면에 물레흔과 타날흔이 관찰된다. 자기류는 2점이 수습되었는데, 모두 백자편으로 번조받침으로는 모래를 사용하였다.

1) 瓦塼類

① 수키와 1(圖面 8-①, 寫眞 9-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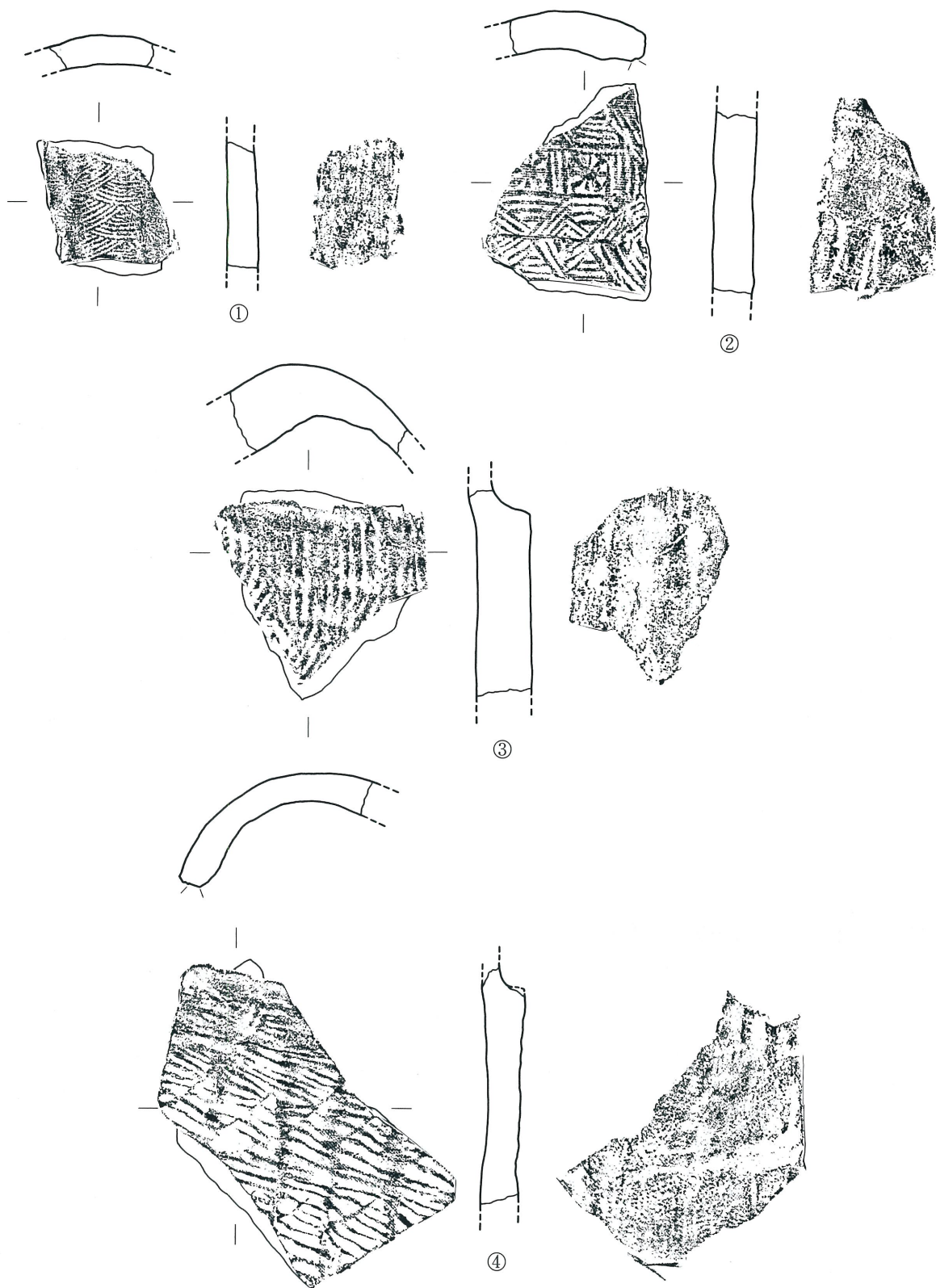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견했다는 담장 옆 소로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 수키와로 斷面의 일부를 포함한 片이다. 등면에는 淸海派紋이 打捺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희미하게 布痕이 관찰된다. 분할 방법은 片으로 잔존하여 알 수 없다. 태토는 가는 사립으로 정선된 편이다.

잔존길이 5.3cm, 너비 6.3cm, 두께 1.5cm.

② 수키와 2 (圖面 8-②, 寫眞 9-②)

아관파천시 사용된 것으로 전하는 담장 옆 소로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 수키와로 斷面과 側面의 일부가 포함된 片이다. 등면에는 集線紋과 車輪紋이 혼합된 複合紋이 打捺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희미하게 布痕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안에서 밖으로 1/3~1/4 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태토는 가는 사립과 석영 등이 혼합된 粘土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잔존길이 6.7cm, 너비 9.2cm, 두께 2.0cm.



0 20cm

[도면 8] 수습유물 1 (와전류)

③ 수키와 3 (圖面 8-③, 寫眞 9-③)

아관파천시 사용된 것으로 전하는 담장 옆에서 확인된 門址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 미구 수키와로 斷面의 일부가 포함된 片이다. 등면에는 集線紋 형태의 文樣이 엇갈리게 打捺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斜線方向의 빗질자국과 布痕이 관찰된다. 분할방법은 片으로 잔존하여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석영 등이 혼합된 粘土로 거친 편이다.

잔존길이 8.9cm, 너비 10.3cm, 두께 2.7cm.

④ 수키와 4 (圖面 9-①, 寫眞 10-①)

아관파천시 사용된 것으로 전하는 담장 옆에서 확인된 門址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 수키와로 斷面과 側面의 일부가 포함된 片이다. 등면에는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集線紋 형태의 文樣이 엇갈리게 打捺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斜線方向의 빗질자국과 희미하게 布痕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안에서 밖으로 1/2~1/3 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태토는 가는 사립과 석영 등이 혼합된 粘土로 조금 거친 편이다.

잔존길이 9.8cm, 너비 11.8cm, 두께 1.7cm.

⑤ 수키와 5(圖面 9-②, 寫眞 10-②)

아관파천시 사용된 것으로 전하는 담장 옆에서 확인된 門址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 미구 수키와로 斷面과 側面의 일부가 포함된 片이다. 등면에는 가로와 세로방향의 集線紋과 원구형태의 文樣이 혼합된 複合紋이 打捺되어 있으며, 내·외면의 일부분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뚜렷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斜線方向으로 그은 빗질자국과 布痕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안에서 밖으로 1/2~1/3 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석영 등이 혼합된 粘土로 거친 편이다.

잔존길이 8.1cm, 너비 14.4cm, 두께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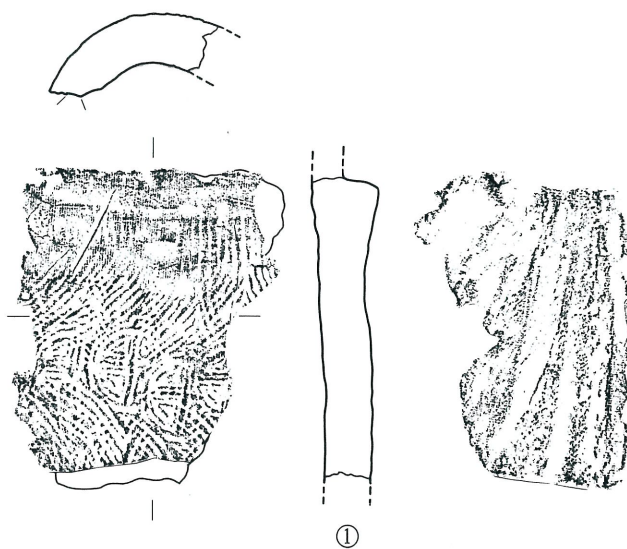
⑥ 수키와 6 (圖面 9-③, 寫眞 10-③)

아관파천시 사용된 것으로 전하는 담장 옆 소로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 수키와로 斷面과 側面의 일부가 포함된 片이다. 등면에는 線紋의 테두리내에 同心圓을 배치한 複合紋이 打捺되어 있으며, 하단의 일부분은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斜線方向으로 그은 빗질자국과 布痕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안에서 밖으로 1/2~1/3 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태토는 가는 사립과 석영 등이 혼합된 粘土로 정선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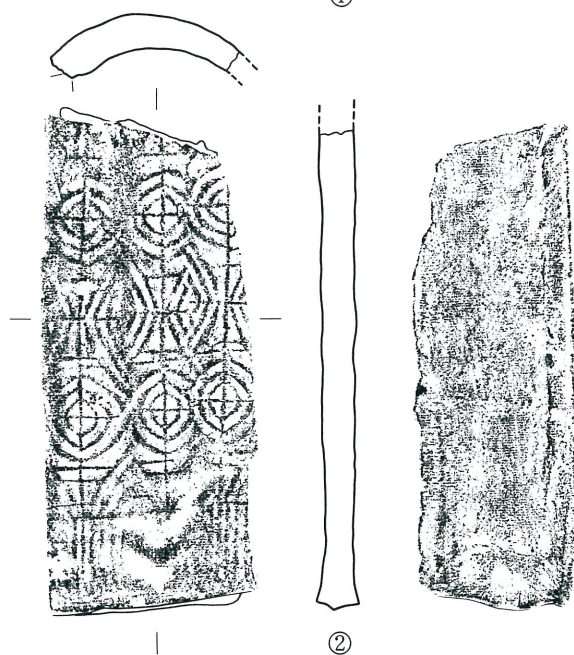
잔존길이 9.1cm, 너비 22.9cm, 두께 1.6cm.

⑦ 磚 (圖面 9-④, 寫眞 1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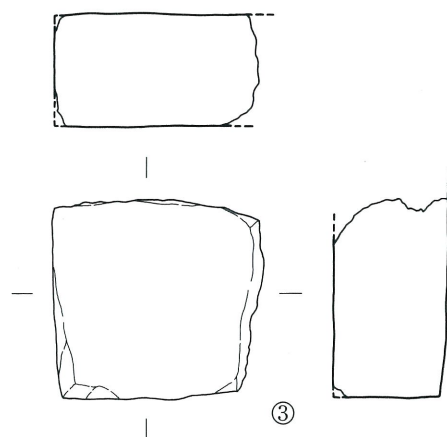
아관파천시 사용된 것으로 전하는 담장 옆 소로에서 수습되었으며, 灰青色 硬質의 無紋 磚片으로 斷面과 側面의 일부가 포함된 片이다. 형태는 片이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長方形으로 추정되며 文樣은 시문되지 않았다. 윗면과 옆면에 비해 밑면은 조금 거친 편이며, 태토는 굵은 사립과 석영 등이 혼합된 粘土로 거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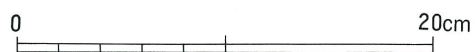
①



②



③



[도면 9] 수습유물 2 (와전류)

잔존길이 9.9cm, 너비 9.5cm, 두께 5.3cm.

2) 陶瓷器類

① 도기 구연부편 1(圖面 10-①, 寫眞 11-②)

현 미국 대사관 관저 주변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粘土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잔존한 동체부의 외면에는 물레로 성형하면서 깎기 등의 수법으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6cm, 두께 0.5cm.

② 도기 동체부편 1(圖面 10-②, 寫眞 11-③)

현 미국 대사관 관저 주변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영이 혼입된 粘土로 정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굵은 사립이 섞여있다. 잔존하는 동체부의 외면에는 2조의 침선이 관찰되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2cm, 두께 0.7cm.

③ 도기 동체부편 2(圖面 10-③, 寫眞 12-①)

현 미국 대사관 부속건물 주변 일대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영이 혼입된 粘土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잔존하는 동체부의 외면 상단에는 파도문이 관찰되며, 1조의 침선과 하단에 사선방향의 文樣이 打捺되어 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7.1cm, 두께 0.7cm.

④ 도기 저부편 1(圖面 10-④, 寫眞 1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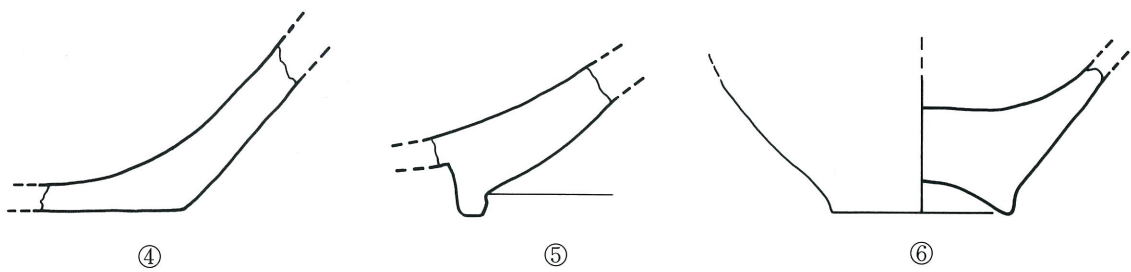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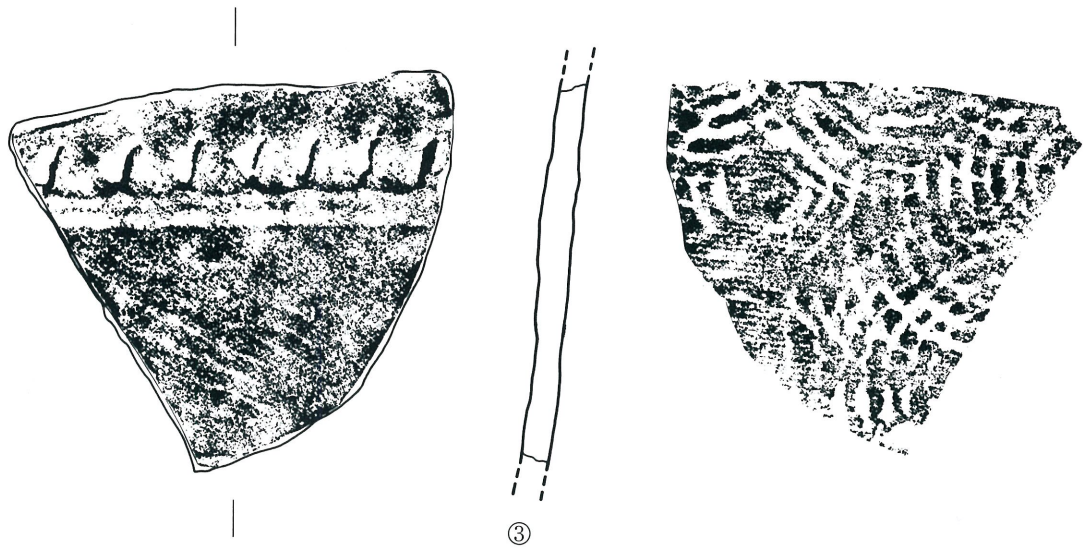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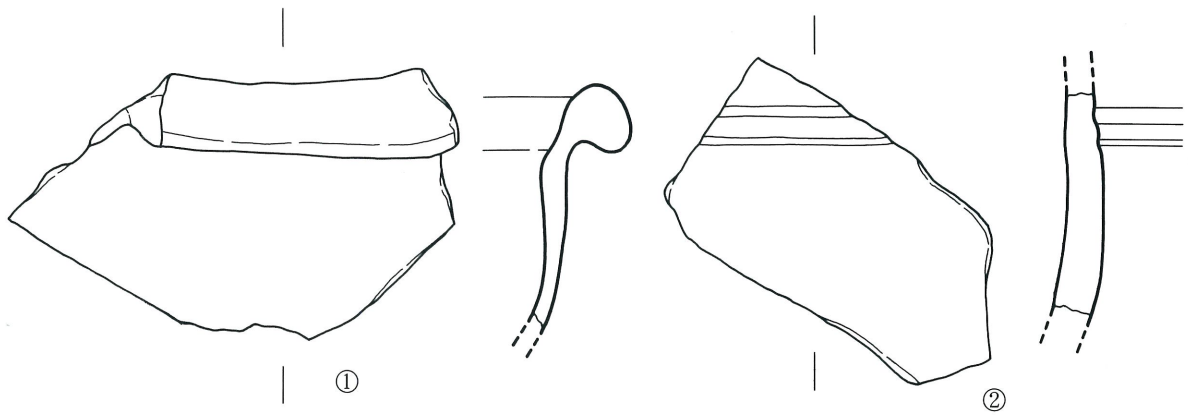
현 미국 대사관 부속건물 주변 일대에서 수습되었으며, 저부와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 및 바닥은 회백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영 등이 혼입된 粘土로 정선되었다. 잔존하는 동체부의 외면에는 물레로 성형하면서 깎기 등의 수법으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바닥은 평저로 추정된다.

잔존높이 3.0cm, 두께 0.8~1.0cm.

⑤ 백자 저부편 1(圖面 10-⑤, 寫眞 12-③)

현 미국 대사관 부속건물 주변 일대에서 수습되었으며, 白瓷 底部片으로 저부와 동체의 극히 일부분만 잔존한다. 유조는 내·외면 모두 淡灰白色이며, 번조방법은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가는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태토는 灰白色으로 치밀하나 瓷化가 덜 이루어졌다.

잔존높이 2.8cm, 두께 1.0cm.



[도면 10] 수습유물 3 (도자기류)

⑥ 백자 저부편 2(圖面 10-⑥, 寫眞 12-④)

옛 경기여고부지 일대에서 수습되었으며, 白瓷 蓋片으로 추정된다. 저부와 동체의 일부분만이 잔존한다. 유조는 내·외면 모두 淡灰白色이며, 내·외면의 일부분에는 작은 철반점이 관찰된다. 번조방법은 굽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태토는 灰白色으로 치밀하다.

잔존높이 2.6cm, 저경 3.4cm.

4. 周邊遺蹟

조사지역은 현 덕수궁(사적 제124호)과 북서쪽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북서쪽에 연접하여 구 러시아 공사관(사적 제253호), 북동쪽으로 구세군중앙회관(서울시 기념물 20호), 남쪽으로 정동교회(사적 제256호)·중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미국공사관(서울시 유형문화재 132호), 동쪽으로 원구단(사적 제157호) 등 문화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는 북쪽에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사적 제117호)과 북서쪽에 경희궁(사적 제271호)·사직단(사적 제121호)이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덕수궁(德壽宮: 사적 제124호)

① 대한문(大漢門)(寫眞 13-①)

德壽宮의 정문으로 1904년(光武 8)에 소실되고 1906년에 중건된 동향의 목조건물로 규모는 29평이다. 소실전에는 大安門이던 것을 1906년 7월 15일 중건 당시 대한문이라 개칭하였다. 대한문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제2차 도로확장 공사시 담장만을 궁내로 이전하여 도로상의 한복판에 분리·폐쇄되어 있다가 1970년 8월 21일 현 위치로 이설공사를 착공하여 1971년 1월 2일 준공되었다.

② 중화문(中和門: 보물 제819호)(寫眞 14)

中和門은 中和殿의 정문으로 규모는 25.3평이며, 1902년에 창건된 목조건물이다. 당초에는 앞에 흙명문과 동편에 선춘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多包式 공포에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팔작지붕이다. 1902년(光武 6) 7월 7일에 정초하고 7월 17일에 입주하고 8월 12일에 상량하였다. 그러나, 1904년(光武 8)에 화재로 중화전과 함께 소실되어 중화전이 단층으로 복구될 때 중화문도 단층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중화문은 1960년대에 중수되면서 보완되었는데 2층이었던 것을 1층으로 하자니 나약해 보였던지 지나치게 지붕을 크게 만들어 건축학적으로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중화문은 1904년 4월의 화재 전 중화문과 규모는 같은데, 1905년 2월 2일 다시 상량한 것을 그대로 남쪽으로 4칸 위치만 옮긴 것이다.

③ 중화전(中和殿: 보물 제819호)(寫眞 15)

1909년(융희 3)에 창건되었으며 규모는 125평이다. 중화전은 2중 석조 기단위에 선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의 전각이다. 공포는 중화문과 마찬가지로 多包式이며 외7포, 내9포이다. 중앙 御間과 양 夾間에 포도 분합문을 달고 邊間에는 머름을 두고 삼분합창을 달았으며 창방 밑에 광창을 두었다. 조선시대 궁중건물로 1902년(光武 6)에 창건된 목조건물로 화재로 인해 손실되었다가 1906년(光武 10)에 중건되었다. 고종황제가 1897년(광무원년)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이어난 후부터 채워 기간동안 정전으로 사용되었다. 본래는 2층 건물이었으나 1904년(光武 8) 4월 14일 화재로 소실된 후 현재의 단층건물로 중건되었다. 지금의 중화전은 1904년 4월의 화재 후 1905년 1월 21일에 다시 상량한 것이며, 그해 7월 27일에 당가, 8월 21일에 좌탑, 8월 24일에 오봉병·곡병·용향로, 그리고 앞뜰에는 조회 및 기타의식이 있을 때 문무백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品位石이 등이 좌우에 배치되었다. 정문으로 中和門이 있고 중화문 앞에 欽明門이 있었다.

④ 함녕전(咸寧殿)(寫眞 13-②)

함녕전은 1897년(건양 3)에 창건된 목조건물로 규모는 97평이다. 정면 9칸, 측면 4칸, 기둥은 방주이고 겹처마 팔작기와지붕 전각인데 서쪽에 익랑이 있어 ‘ㄱ’자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공포는 翼工式이다. 1904년(光武 8)에 중건되었으며, 고종황제의 침전으로써 1904년(光武 8) 4월 14일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동년 12월에 복원·중건하였다. 순종은 즉위 뒤 잠시 여기서 거처했고 고종은 양위 뒤 수옥헌에 있었으나,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겨간 뒤 1919년 1월 21일 이 침전에서 승하하셨다. 그 뒤 이곳은 빈전, 혼전으로 사용했으며 고종황제의 혼전을 孝德殿이라 불렀다.

⑤ 덕홍전(德弘殿)

1911년(隆熙 5)에 창건된 목조건물로 규모는 44평이다. 덕홍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전각이며 공포는 翼工式이다. 이 건물의 특징은 정면이 3칸인데 측면이 4칸인 점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방법이다. 1904년(光武 8) 4월에 화재 뒤 수옥헌 방면으로 옮긴 경효전 터에 1911년 이 건물을 지어 내외 귀빈의 謁見所로 사용했다.

⑥ 석조전(石造展)(寫眞 16-①)

1909년(융희 3)에 창건되었으며 규모는 1,245.9평이다. 이 건물은 콜로니얼 스타일의 건축으로 건물 외부에는 이오니아식 柱頭로 된 열주가 늘어서 있고 전면 중앙현관의 상부 박공에는 황실 문장인 배꽃이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궁중건물 중에서는 최초로 유럽풍의 석조로 건립된 “르네상스식 건물”이며, 영국인 기사 ‘하딩(G. R. Harding)’의 건물설계와 공사 초기에는 한국인 沈宣錫, 러시아인 사바틴(Sabatin), 일본인 오가와(小川) 등이 감독하였고 영국인 ‘로벨’의 내부 장치로 영국인 ‘데이비슨(M. H. Davidson)’의 감독하에 1900년(光武 4)에 기공되어 1909년(隆熙 3년)에 준공되었다. 1층에는 시종인들의 거실, 2층에는 접견실을 두고 3층은 황제·황후의 침실, 거실·담화실·욕실이 배치되어 있다. 석조전은 특별한 건물의 명칭은 없이 “석조전”으로만 전해져 왔다. 高宗은 이곳을 고관대신과 외국사절들을 접견하는 곳으로 사용

하였다. 1933년 미술품을 진열하기 위하여 건물내부를 일부 수리하여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기 이전까지 현대미술품을 진열하였으며 1946~1948년까지 미·소 공동위원회가 사용하였고 1948~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엔한국위원단이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어 1955년 육군 공병단에 의해 수리되었다 그 후부터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1937년 이왕직박물관으로 지은 별관은 연면적이 1,104평이며 해방 뒤 석조전의 부속건물로 사용되었다.

⑦ 정관헌(靜觀軒)(寫眞 16-②)

정관헌은 1901년(光武 5)에 창건된 서양식 건물로 규모는 77.7평이다. 팔작지붕 등 동양적 요소가 있는 벽돌조 단층 양옥인데, 인조석 씻어내기로 만든 독립기둥에는 로마네스크식 柱頭가 있다. 그 뒤 전면과 측면 테라스에 정교한 아케이드를 만들어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진전의 화재 뒤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고 한동안 慶運堂이라 불렀으나, 새 진전이 완성됨에 따라 영정을 그 곳으로 옮겼다. 1906년 흥문각, 繼明齋로부터 고종의 어진, 순종의 예진을 한 때 이곳으로 옮겼는데 그 뒤 다시 되돌려 보낸 일도 있다.

⑧ 석어당(昔御堂)(寫眞 17)

창건연대는 확실하지 않고 1904년(光武 8)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동년에 중건하였으며 규모는 46.3평이다. 덕수궁의 유일한 목조 2층 건물로 宣祖가 임진왜란 중 의주로 몽진하였다가 환도(1593년)한 후부터 승하할 때까지 16년 동안 이 곳에서 집정하였고 인목왕후가 慶運宮 宣祖의 침전에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국보를 상에 안치한 가운데 光海君을 석어당 뜰 아래 꿇어 앉히고 36조의 죄를 책한 곳이다. 그리고 陵陽君에게 국보를 주니 이가 곧 仁祖이다.

⑨ 준명당(浚明堂)(寫眞 18-①)

이 건물은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1897년(光武 2)에 중건된 것으로 추측되는 목조건물로 즉조당과 연결되어 있으며, 규모는 즉조당을 포함해서 83.9평이다. 고종황제가 한때 이 집에서 거처하였고, 후에 고종과 순종황제의 초상화를 이곳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사절을 접견하기도 한 곳이다.

① 1897년 건축. 조선중기 건물인 卽祚堂과 건축특징 달랐음
② 현 준명당은 1904년 중건된 것 (경운궁중전로감의례, 朱南奩백)
* 浚明殿
다른 건물
(朱)
중전로감의례 즉조당
양식 생략 통일됨.

⑩ 즉조당(卽祚堂)(寫眞 18-②)

이 건물은 浚明堂과 연결되어 있으며, 光海君과 인조가 이 곳에서 즉위하였다. 1904년(光武 8)에 화재로 손실된 것을 그해에 다시 昔御堂·威寧殿과 같이 복원·중건한 것이다. 高宗의 후비인 순헌귀비 염씨가 1907년부터 1911년 7월 승하할 때까지 이곳에서 거처하였다.

2) 원구단(圓丘壇: 사적 제157호)

원구단은 1897년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南別宮) 터에 원단(窩壇)을 만들어 조성한 단지이다. 그 뒤 단지내에는 신위판(神位版)을 봉안(奉安)하는 3층 8각 지붕의 황궁우(皇

穹宇)를 1899년에 축조하고,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석고단(돌북)을 황궁우 옆에 세웠다. 악기인 듯한 석고의 몸체에 부각된 용 모양은 조선 말기 조각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처음 조성된 단지는 1913년 원단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다음해 조선호텔이 들어서면서 축소되었으며,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단, 그리고 3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이 보존되어 조선호텔 경내에 남아 있다.

3) 경희궁(慶熙宮: 사적 제271호)

경희궁은 원래 조선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의 잠저(潛邸)가 있던 곳이다. 1616년(광해군 8) 건립 당시에는 경덕궁(慶德宮)이라 하였으나, 1760년(영조 36)에 경희궁이라고 개칭하였다. 경희궁에 임금이 거처하기 시작한 것은 인종 때로서 이괄의 난으로 거처하던 창경궁이 불에 타자 1624년 2월부터 경희궁에 거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경희궁은 280여년 동안 여러 왕들의 거처로 창덕궁과 더불어 그 웅장함을 지켜오다가 1910년 국권피탈 직전부터 일본인들에 의하여 강제로 철거되었다.

처음에는 회상전·융복전·집경당·홍정당·승정전·홍화문·황학정 등의 건물이 함께 있었으나 융복전과 집경당은 없어지고, 나머지 건물들은 1910년 경성중학교(지금의 서울고등학교)가 설립된 후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회상전은 조계사로, 홍정당은 광운사로, 승정전은 조계사에 옮겨다가 다시 동국대학교으로, 황학정은 사직공원 뒤로 각각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8·15광복 후에도 서울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가 이 학교의 이전에 따라 현대건설이 부지를 사들여 사용하였고, 이를 다시 서울특별시가 인수하여 1988년부터 복원작업이 시작되었다. 2001년 현재 궁궐터는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했지만, 승정전과 회랑, 홍화문은 복원되었다.

4) 구 러시아 공사관(舊 露西亞 公使館: 사적 제253호)(寫眞 19-①)

서울시 중구 貞洞에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며 구한말(고종 27년)에 건축된 이 건물의 설계자는 러시아인 사바틴이다. 탑은 3층의 벽돌구조로 부지면적은 215㎡이다. 이 건축물은 조선후기에 건축되었으며, 고종이 1896년 2월 1일 세자(뒤의 순종)와 함께 옮겨가 다음해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할 때까지 궁궐을 버리고 피신했던 곳이다. 또한 아관파천 중에 친일 金弘集내각이 무너지고, 친러 朴定陽내각이 조직되는 등 역사적으로 의의가 큰 건물이다. 탑 아래의 석단시설이나 주위상황으로 보아 이 건물에 이어지는 건축물이 있었을 듯한데 현재는 탑부만 남아있어 당초의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25 전쟁 때 불타고 탑 부분과 지하 2층이 남아있었는데, 1973년 현재의 모습대로 복원되었다.

5) 정동교회(貞洞教會: 사적 제256호)(寫眞 19-②)

서울시 중구 貞洞에 있는 한국 최초의 프로테스탄트교회 건축물이다. 1895년 12월에 착공, 이듬해 9월에 준공된 고딕풍의 붉은 벽돌건축물이다. 이 정동교회는 1885년 10월 11일,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 목사 아펜젤러가 정동에 마련한 “벨엘기도실”이라는 그의 작은 집에서 감리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위한 공중예배를 가짐으로써 정동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동교회는 1889년 한국 최초의 월간잡지 ‘교회’를 발간하여 자유주의사상을 불어넣기 위하여 힘썼다. 1897년에는 미국의 엡윗청년회운동을 도입하여 청년사업을 전개하였고, 1922년 한국 최초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설하는 등 선구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한 한국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다.

6) 구세군중앙회관(救世軍中央會館: 서울시 기념물 제20호)(寫眞 20-①)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지상2층이며 1,460.97㎡이다. 1926년에 건립되었으며 2002년 3월 5일 서울시지정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다. 현관의 열주 및 天蓋(캐노피)가 당당하며 현관쪽의 바닥은 물갈기 슬라브이나 복도 및 계단 난간은 목조로 되어있다. 1층은 사무실, 2층은 집회·예배당이 있고 목조 트러스가 이색적인 아름다움이 보인다. 구세군 활동 일부라는 종교적 역사도 있으며, 근대건축으로써의 근대역사가 유서 깊은 정동에 남겨둘 가치는 인정되며 정면 보존상태 좋다. 페디먼트에 '救世軍士官學校'로 명시되어있고, 현관부분에 1926년이라는 '건립기'가 세워져 있으며, 세부적인 개조가 있고, 건물 뒷면에 증축이 있지만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920년대 구세군 관련 건축물의 역사성이 있고 좌우대칭의 안정된 외관이 잘 보존되어 근대 건축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7) 중명전(重明殿: 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寫眞 20-②)

서울특별시 중구 貞洞에 있는 조선후기의 건물로 대지 2,399㎡(727坪), 건축면적 877.8㎡(236坪)의 서양식 2층 벽돌집이다. 1900년 1월 덕수궁 별채로 건립되었으며 고종의 외교사절단 접견장 겸 연회장으로 쓰였으나 1904년 덕수궁이 불타자 고종은 이곳으로 옮겨와 1907년 純宗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3년간 거거하였다. 중명전의 처음 이름은 漱玉軒이며, 후에 乙巳條約이 체결되었던 비운의 장소이다.

8) 구 미국 공사관(舊 美國 公使館: 서울시 유형문화재 132호)

구한말 정동일대는 서구의 공관들과 그들의 회합 등에 필요한 건물로 이루어진 조선의 외교장이었다. 이 건물은 미국 공사관이 도성에 설치되는 1883년(고종 20)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전통 한옥으로 지었다가 1900년 무렵에는 부분적으로 증축하고 내부를 개조하였다. 그뒤 행랑부분을 증축하여 지금의 건물모습을 이루었다. 1883년 당시의 건물원형이 많은 부분 남아 있으며 서울에 세워진 최초의 외국 공사관건물이다. 지표조사 당시 이 건물은 건축 부재가 낡고 썩어 해체·복원작업을 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 調查團意見 -

주한미국 대사관 신축예정부지인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에서는 이 일대 43,837㎡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이 옛 덕수궁 영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덕수궁의 역사와 변천, 건축물들의 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연구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선행된 문헌조사연구 결과 해당 지역은 덕수궁의 영역 가운데 영성문 대궐 구역으로 선원전·홍덕전·홍복전 등의 전각이 있던 지역이었음이 밝혀졌다. 선원전은 역대 임금의 어진을 봉안하였던 진전이고, 홍덕전과 홍복전은 국장 이전의 혼백과 시신을 모셨던 빈전, 그리고 국장 이후 분묘 이전까지 신주를 모신 혼전 등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대한제국의 정궁인 경운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견했다는 담장옆 소로에서 초석과 계단시설이 남아있는 문지 1개소, 현 미국 대사관 관저 북쪽과 서쪽에서 확인된 장대석 및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장대석과 초석들이 화단의 경계석이나 조경석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옛 경기여고 교정의 회화나무를 비롯한 은행나무·버드나무 등 오래된 수령의 자연문화재도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조사지역 전체적으로 와전류와 도자기류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지금까지의 문헌조사연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조사단의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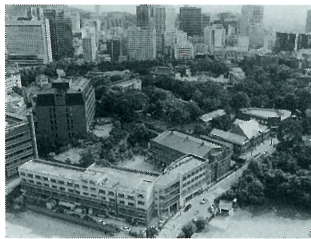
덕수궁은 조선시대 5대궁의 하나로 현재 사적 제124호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궁궐이다. 문헌조사연구 결과 미국 대사관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부지에는 선원전·홍덕전·홍복전 등의 진전과 빈전 등 궁궐에서도 특히 신성한 영역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문지,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조사되어 궁궐터였음이 확실하므로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궁궐지》

-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 『사진으로 보는 경기여고 90년』, 분도인쇄출판사, 1998
- 김대벽, 『서울의 궁궐』, 조선일보사, 1997
- 김동현,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 김순일, 『덕수궁』, 대원사, 1999
- , 「경운궁의 영건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 백찬규, 「조선시대 궁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문화사적편)』, 서울특별시, 1995
- 신영훈, 『조선의 궁궐』, 조선일보사, 1999
-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1
- 이철원, 『왕궁사』, 동국문화사, 195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사, 1994
- 한재수, 「한국 건축사학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 홍순민, 『우리 궁궐이야기』, 청년사, 2001

사 진





①



②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①현 덕수궁 부근, ②옛 경기여고 부근



①



②

[사진 2] 옛 경기여고 전경 ① 교사, ② 내부 및 회화나무
(경기여자고등학교 동창회, 『사진으로 보는 경기여고 90년』, 분도인쇄출판사, 1998)



①



②

[사진 3] 미국 대사관 관저 및 부속건물지역 전경 ① 부대사관저, ② 부속건물



①



②

[사진 4] 조사지역 전경 ① 고종황제 아관파천길, ② 유물노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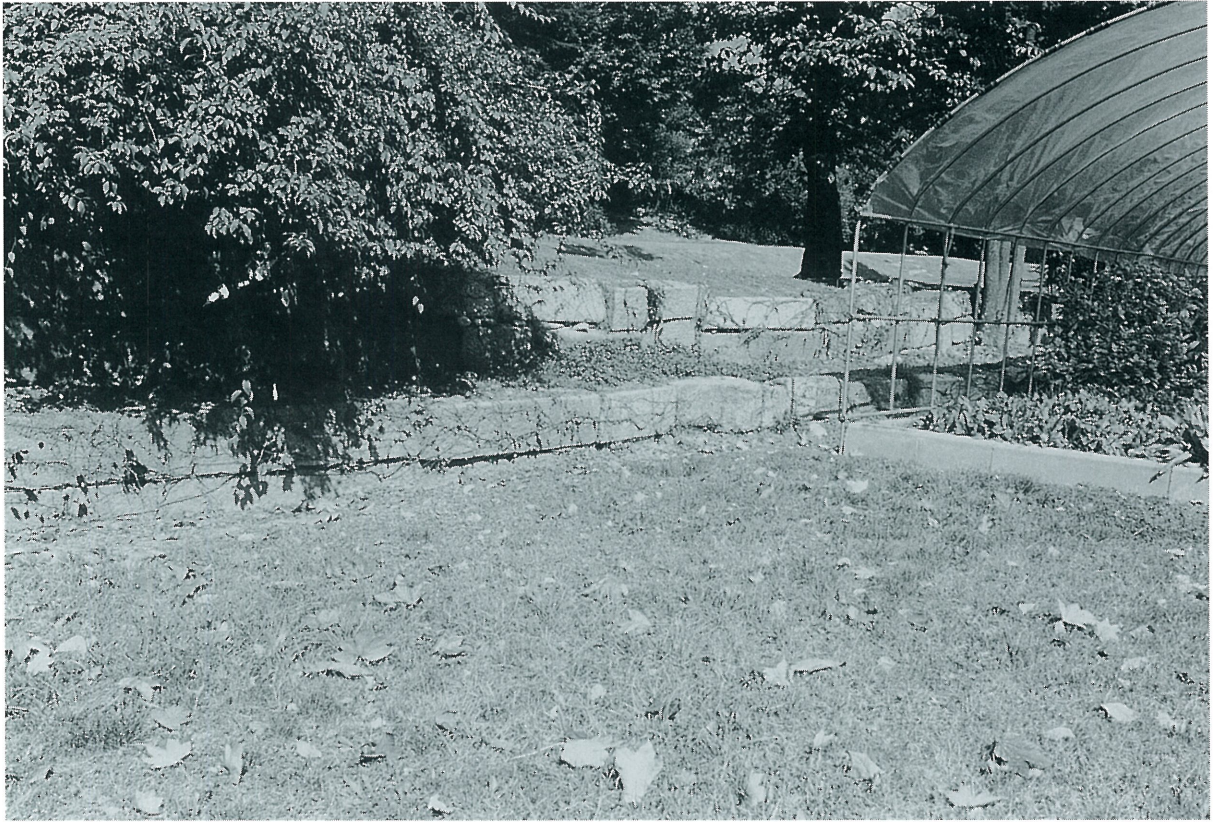


①



②

[사진 5] 문지 전경 ① 북쪽에서, ② 남쪽에서



①



②

[사진 6] 미국 대사관 관저 주변 석축 전경 ① 북쪽 장대석 석축, ② 서쪽 사고석 석축



①



②

[사진 7] 조사지역내 석재 전경 ① 추정 초석, ② 장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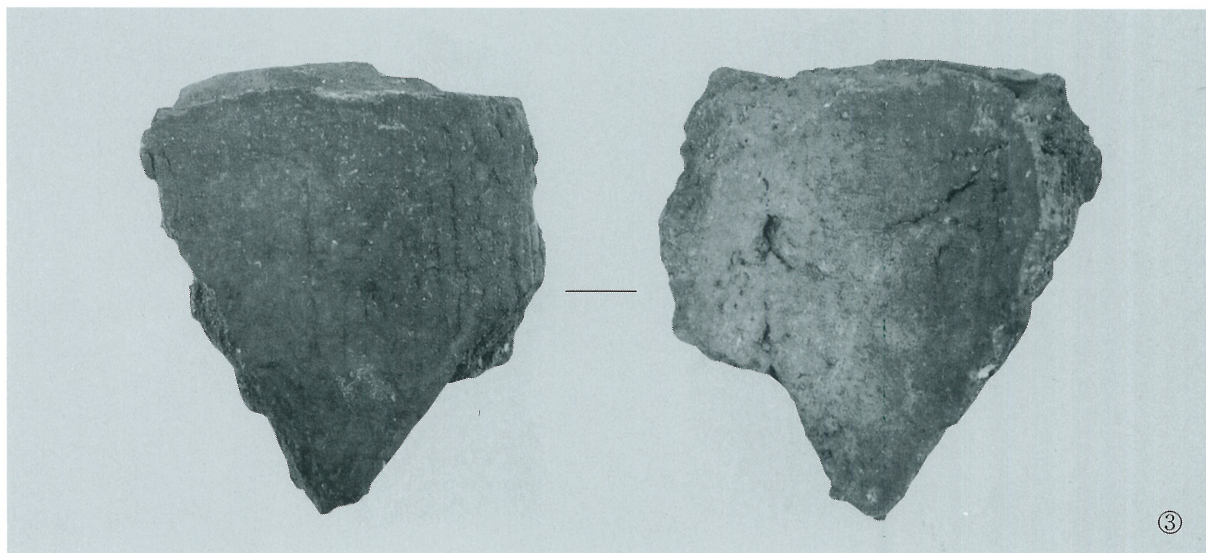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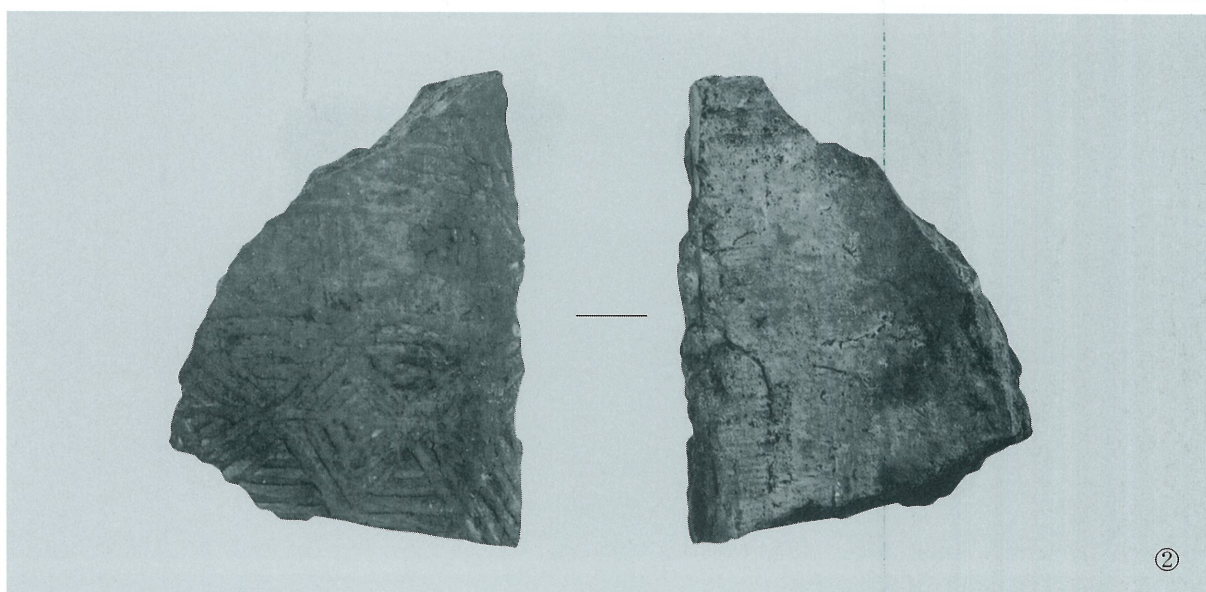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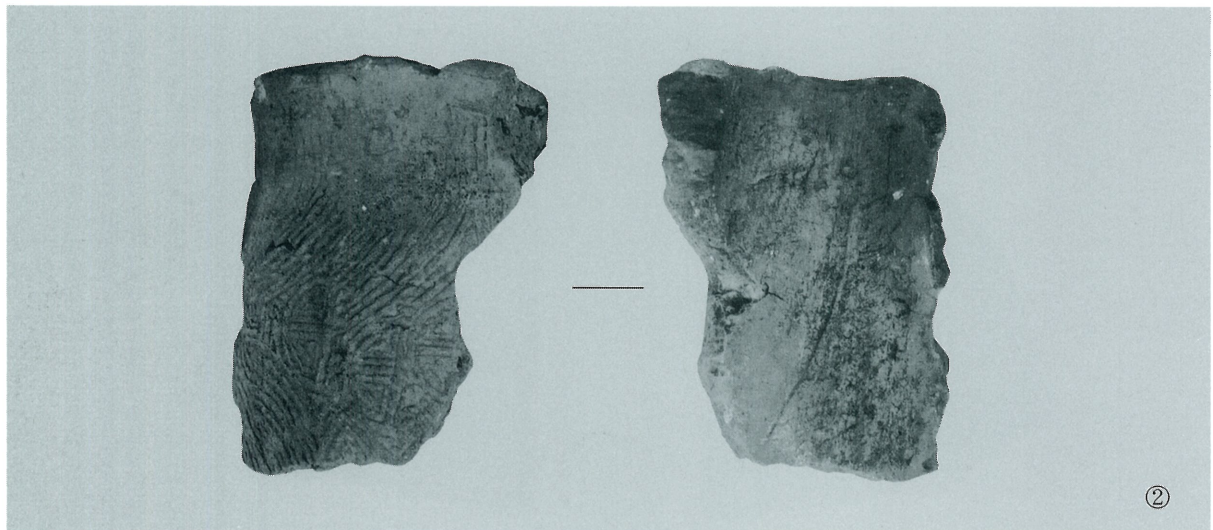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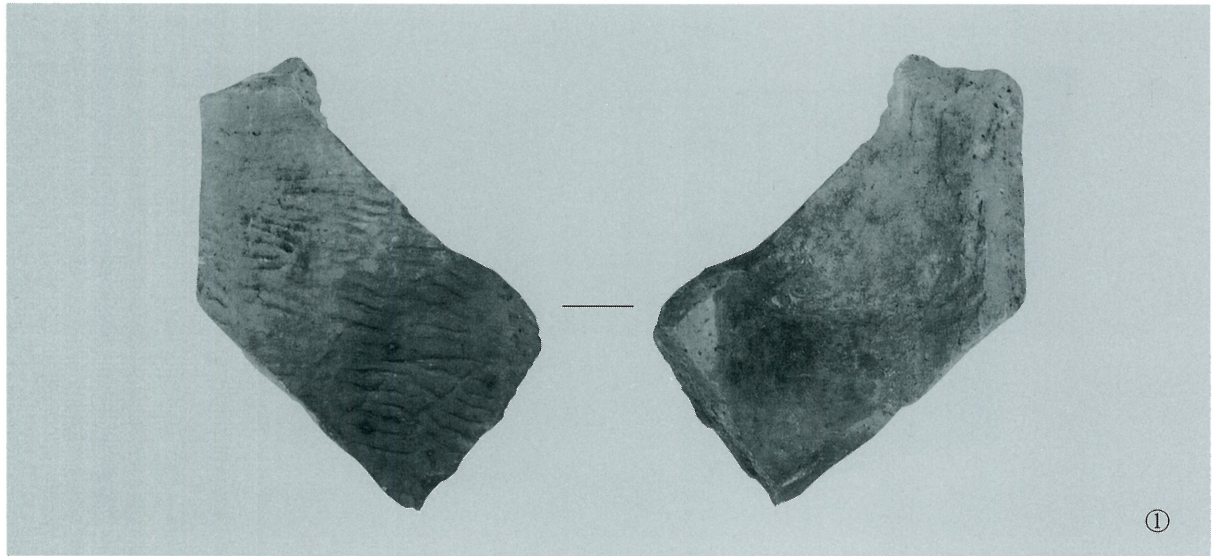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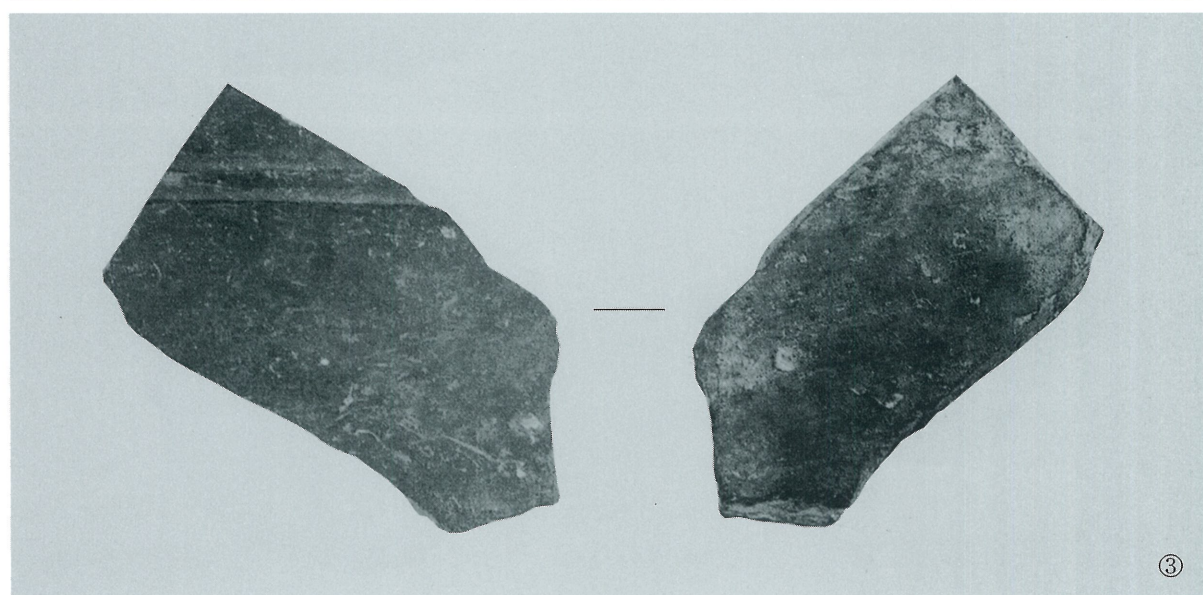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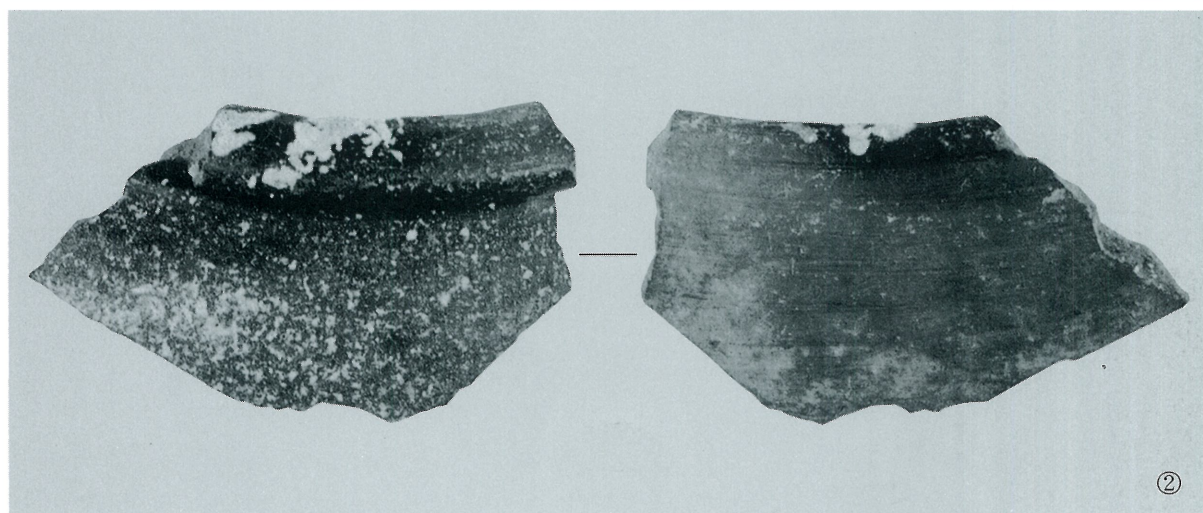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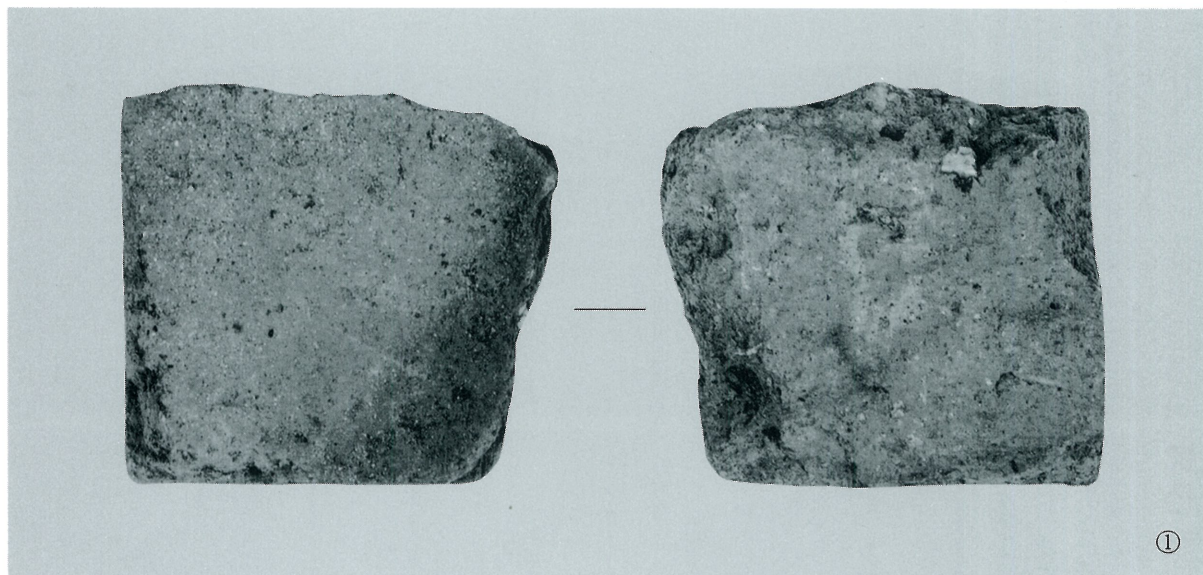
[사진 8] 조사지역내 노거수 전경 ① 옛 경기여고 교정내 회화나무, ② 버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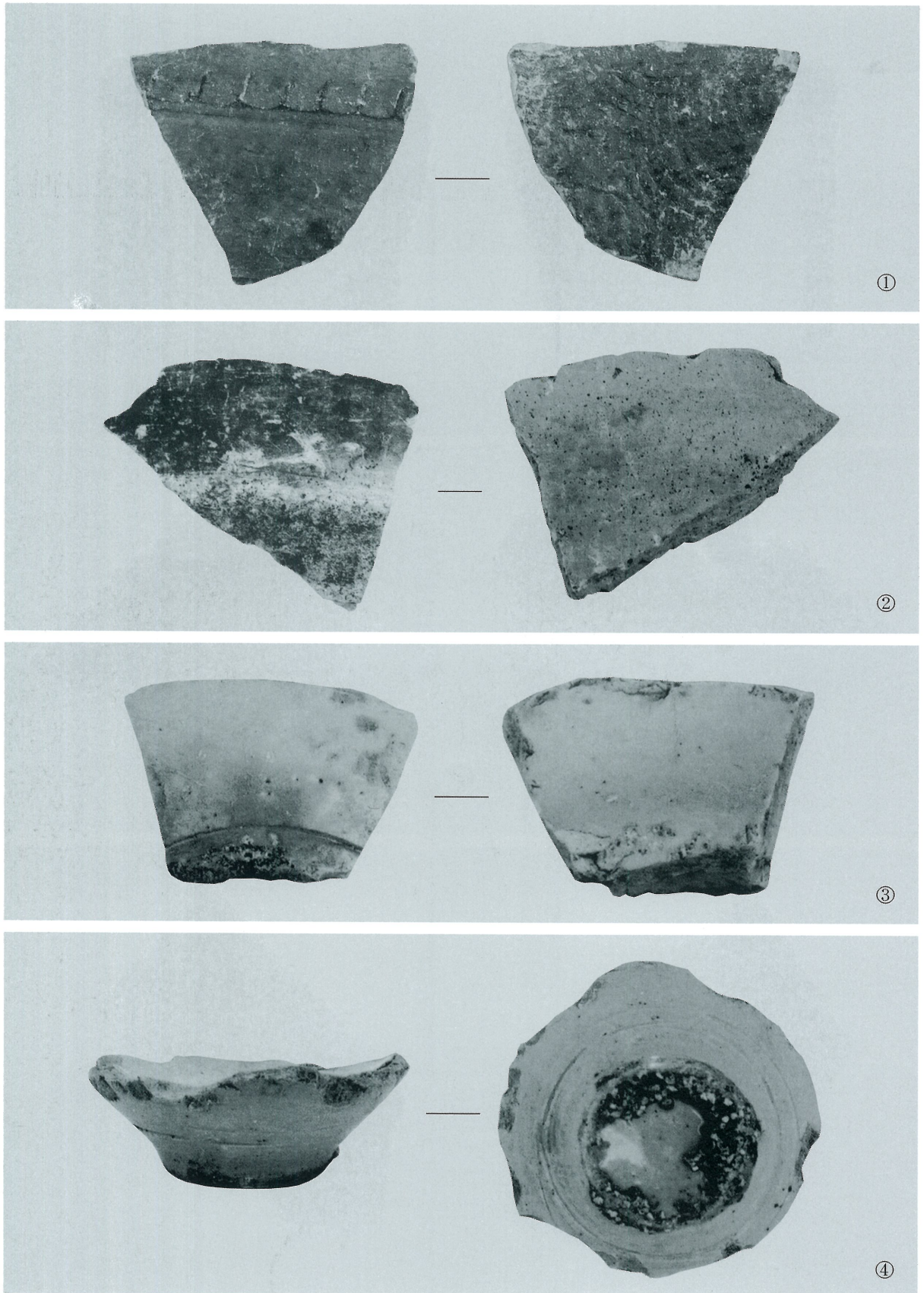
[사진 9] 수습유물 1(①~③ 기와편)



[사진 10] 수습유물 2(①~③ 기와편)



[사진 11] 수습유물 3(① 전면, ②·③ 도기편)



[사진 12] 수습유물 4(①·② 도기편, ③·④ 자기편)



①



②

[사진 13] 덕수궁 ① 대한문 전경, ② 함녕전 전경



①



②

[사진 14] 덕수궁 중화문 ① 전경, ② 측면



①



②

[사진 15] 덕수궁 중화전 ① 원경, ② 근경



①



②

[사진 16] 덕수궁 ① 석조전 전경, ② 정관헌 전경



①



②

[사진 17] 덕수궁 석어당 ① 전경, ② 측면



①



②

[사진 18] 덕수궁 ① 준명당 전경, ② 즉조당 전경



①



②

[사진 19] 주변유적 ① 구러시아공사관, ② 정동교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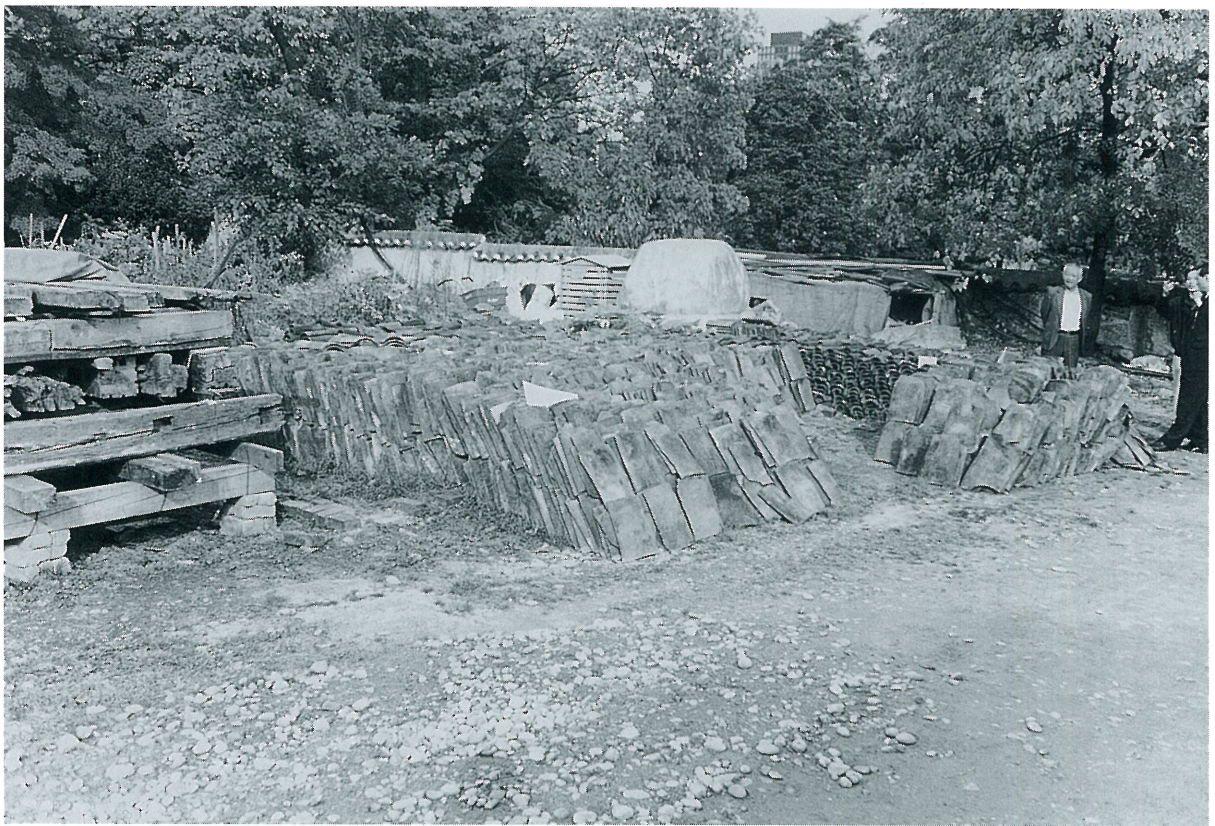


②

[사진 20] 주변유적 ① 구세군중앙회관, ② 중명전



①



②

[사진 21] ①·② 현장조사 전경



①



②

[사진 22] ① · ② 지도위원회의 광경



①



②

[사진 23] ①·② 지도위원회의 광경

〈附 錄〉

- 지표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 지표조사 지도위원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2003. 10. 24.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I. 調査概要

1. 조 사 명 : 중구 정동 (1-39) 문화유적 지표조사
2. 유 적 위 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3. 조 사 면 적 : 43,837㎡(약 13,260평)
4. 조 사 기 간 : 2003. 06. 11~2003. 10. 24 현재.
5. 유 적 성 격 : 조선시대 궁궐 및 건물지
6. 조 사 기 관 :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7. 조사의뢰기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8. 조 사 목 적 :

조사대상지역은 주한미국대사관의 관저 및 숙소건립 예정부지로 현 덕수궁에 인접한 곳이므로 부지내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무와 분포범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 조사단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단장(공동)	김 정 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윤 세 영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
지도위원	김 병 모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교수
	손 병 헌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 몽 룡	서울대학교 교수
현장조사팀	류 형 균	책임조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남 주	조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김 경 범	조사보조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문헌조사위원회	정 영 호	연구위원장, 단국대학교 박물관장
	김 순 일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이 민 원	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김 중 헌	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신 명 호	연구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 영 화	연구원, 한국역사자료연구소 연구원
	이 경 미	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김 숙 경	연구원, 부산대학교 강사
	서 동 일	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전 해 식	연구원, 배재대학교 한국전통건축연구소 연구원
사무처리	이 우 승	사무국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실장

II. 調查地域 沿革

德壽宮은 사적 제124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5大宮의 하나이다. 원래 조선 선조때 行宮으로 설치하였던 宮室을 광해군때 '慶運宮'으로 조영한 궁궐이며, 이후 明禮宮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대한제국기 고종의 퇴위후 덕수궁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덕수궁에서는 16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300여년간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었는데 선조의 승하와 광해군의 즉위, 인목대비의 유폐사건과 인조반정 등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다.

덕수궁은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순종황제의 즉위 등 한국현대사의 한 면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덕수궁의 넓었던 옛 규모는 줄어들었으며, 일제는 수십의 전·각 부속건물들을 훼손시켜 오늘의 협소한 모습으로 변형시켰다. 문헌조사 결과 경기여고 옛 자리로 알려진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지역은 덕수궁 영역중 영성문 대궐구역으로 璿源殿·思成堂·興德殿·興福殿 등이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원전과 사성당은 역대 임금의 御眞을 모셨던 眞殿이었고, 홍덕전과 홍복전은 국장 이전의 혼백과 시신을 모셨던 殯殿, 국장 이후 분묘 이전까지 신주를 모셨던 魂殿으로 사용하였던 곳이어서 대한제국의 왕궁인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다. 국왕이 궁궐을 옮길 때는 반드시 거쳐하는 대궐로 어진을 옮겼는데, 이러한 사실은 역대 왕의 어진을 통해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선원전은 고종이 덕수궁으로 移御한 직후 가장 먼저 신축하여 진전으로 삼았으나, 1900년 화재로 인해 전각과 7室의 어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고종은 선원전 중건과 새 영정의 模寫를 지시하였다. 1901년 고종은 선원전 중건과 더불어 선원전·사성당 등의 진전과 홍덕전·홍복전·의효전 등의 빈전과 혼전을 영성문 대궐 영역안에 넣어 궁궐내의 다른 영역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신성스러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렇듯 영성문 대궐권역에 있는 모든 건물이 진전과 빈전, 혼전으로 사용하였던 것은 고종이 이 구역을 의도적으로 신성한 영역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영역은 1919년 고종황제의 下世後 즉시 일본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훼손당하게 되었다. 고종의 1주기 직후 선원전 영역이 해체되었으니 모든 전각들이 훼손 혹은 옮겨져서 돌 한 개까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1920년 4월에 선원전 구역의 부지가 조선은행·식산은행·경성일보사에 매각되어 5월에 선원전 구역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1919년 해체된 영성문 대궐구역은 1920년에 선원전 터 바로 뒤에 해인사 중앙포교소가 들어섰고, 이 지역은 1934년 조선저축은행이 인수하여 사택을 지었다. 1922년 의효전 자리에는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지금의 덕수초등학교)가 들어섰고, 홍덕전과 홍복전 자리에는 경성제일공립고등학교(옛 경기여고)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1945년 10월부터 경기여고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한·미 양해각서에 의하여 1988년 개포동 부지로 이전한 후 지금은 미국 소유의 공터로 남아있다. 등기부에 의하면 홍덕전과 홍복전 구역인 서울시 중구 정동 1-8번지는 1990년 7월 3일 교환에 의해 미국의 소유가 되었으며, 선원전 구역인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는 1948년 9월 20일 매매에 의하여 미국 소유가 되었다.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해방정국의 격동기로서 덕수궁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UN 한국위원회 등이 열려 다시 한번 각 국의 외교력이 결집되는 공간이 되었다. 그후 주변을 정리하며 1984년 중화전 정전을 복구하고 금천교를 복원하여 1992년에 궁중유물전시관을 열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조선왕궁 수문장 교대식도 진행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중구 정동 1-8, 1-39번지 일대 지역을 살펴본 문헌조사 결과 이곳에는 대한제국의 정궁인 덕수궁의 진전으로서 선원전과 사성당, 흥덕전과 흥복전 등이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영성문 대궐 구역으로 불리우며, 조선과 대한제국을 연결시켜 주는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진전·빈전·혼전으로 사용되었던 신성 공간이었다.

Ⅲ. 調查內容

1. 유구 및 자연문화재

조사지역은 현 덕수궁과 북서쪽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북서쪽에 연접하여 러시아공사관(사적 253호), 북동쪽으로 구세군중앙회관(서울시 기념물 20호), 남쪽으로 정동교회(사적 256호)·증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53호)·미국공사관(서울시 유형문화재 132호) 등 근대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크게 현 미대사관저와 그에 따른 부속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옛 경기여고 교정이 위치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미대사관저와 부속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이미 20세기초이래 미국공사관을 비롯해 각종 건축물로 옛 덕수궁의 경내가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옛 경기여고 지역은 1988년 경기여고의 이전 이후 방치된 상태이다.

현장조사 결과 문지 1개소와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장대석 및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노거수 등이 확인되었다.

① 문지

미대사관저 서측 담장 외곽의 소로 부근에서 문지의 초석으로 보이는 40×40cm 내외의 방형 석재들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다. 초석의 배치상태와 문지로 오르내리는 전면의 계단시설로 미루어 남향의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 주변의 소로는 아관파천 당시 고종황제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했던 통행로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지와 러시아공사관과의 거리는 약 150m 내외이다.

현재 남아있는 문지 초석의 간격으로 보아 문지의 너비는 190cm 정도이며 문지로 오르내리는 계단시설이 2개소 정도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붕괴되어 하부 2~3단 정도만이 남아있다.

초석을 제외하고는 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물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기와편과 토기편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② 석축

옛 덕수궁과 관련된 석재로 추정되는 장대석 및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시설이 2~3개소 정도 확인되었다.

현 대사관저의 북쪽과 서쪽을 따라 축대가 돌려져 있는데, 북쪽의 축대 가운데 길이 100cm, 두께 20cm 내외의 장대석을 이용한 석축시설이 3~4단 정도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쪽에는 사고석을 이용하여 각 층마다 3단 정도 축조한 2층의 석축시설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대사관저의 외곽을 따라 조성된 배수로의 상면에 일부 치석된 화강암석재를 재사용하였음도 확인되었다.

③ 석재

조사지역내에서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일부 조사되었다. 석재들은 대부분 치석된 화강암들로, 부대사관저를 비롯하여 부속건물 주위의 화단시설의 부재로 이용되거나 정원의 석재로 방치된 상태이다.

④ 자연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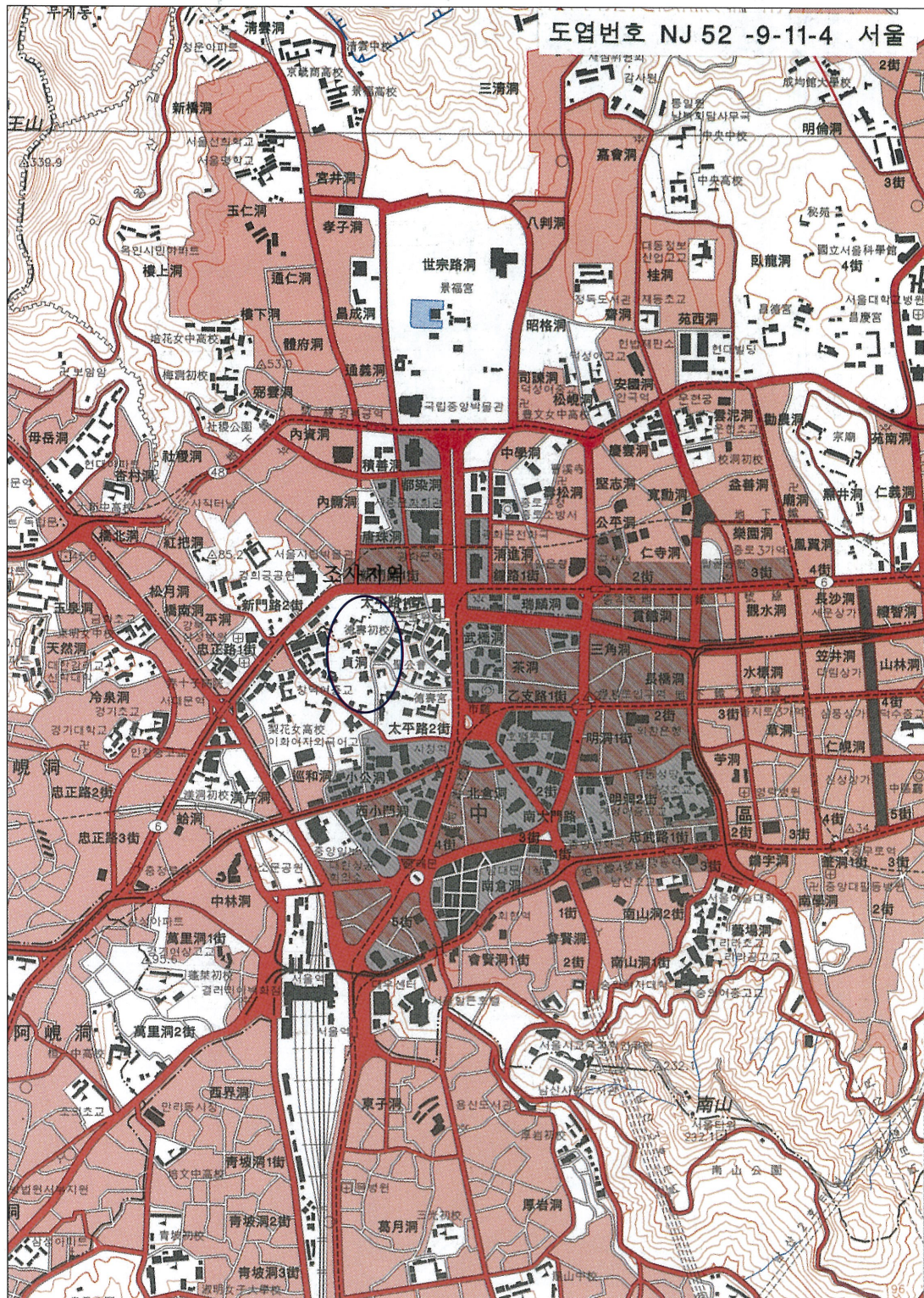
조사지역 내에는 상당수의 노거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나무를 비롯한 노거수 4그루가 확인되었다. 옛 선원전지로 추정되는 대사관저 부속건물 주위에서 은행나무 2그루와 버드나무 1그루가 조사되었으며, 옛 경기여고 교정에 회화나무 1그루가 위치하고 있다.

2.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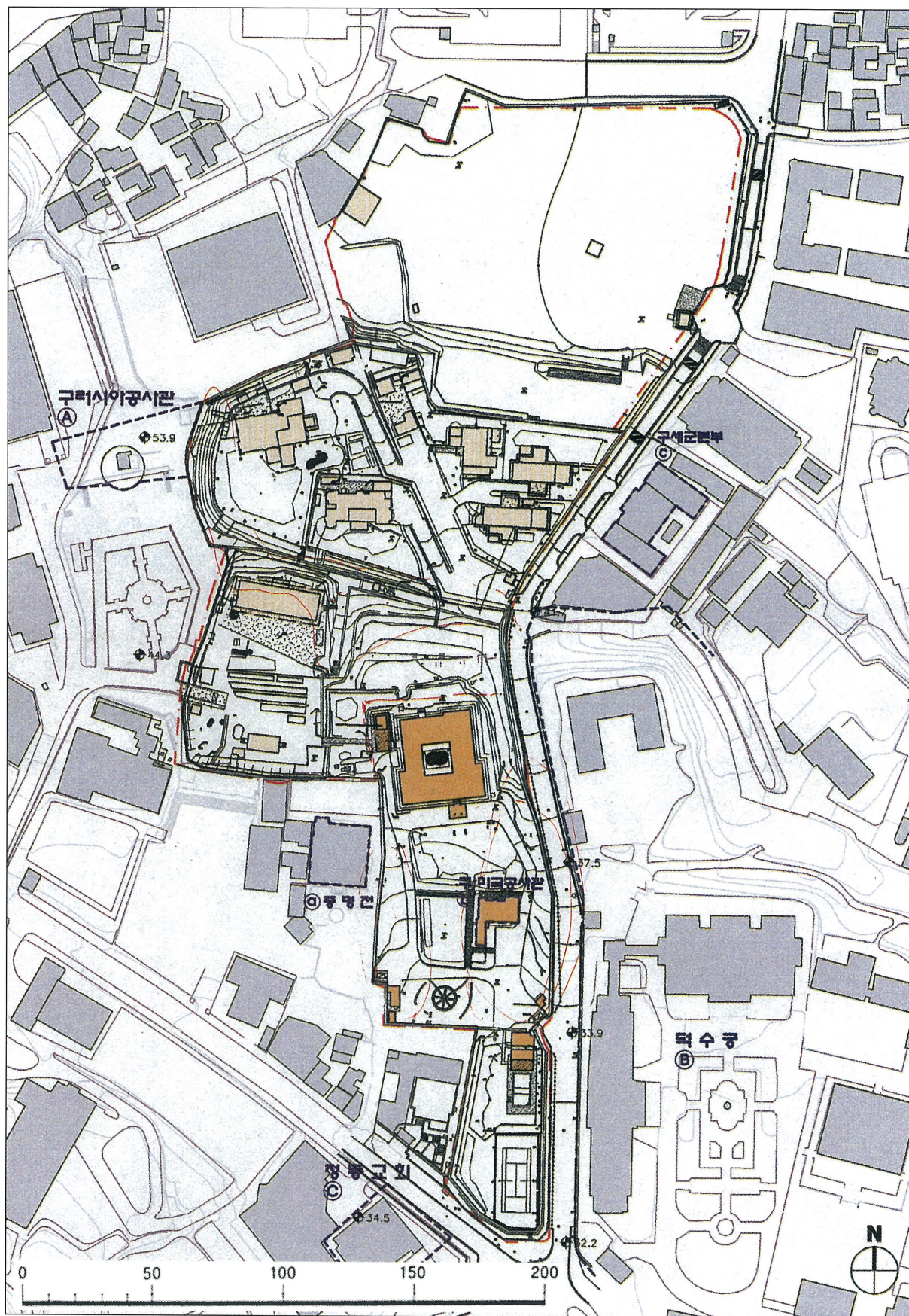
지표조사 지역에서 수습된 유물은 기와류와 도기편이 있다. 기와류는 조사지역내에서 넓은 분포도를 가지며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片의 상태로 확인되었다. 기와의 문양은 파도문, 무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막새 및 명문와는 수습되지 않았다. 도기는 대부분 회청색 경질의 생활 용기편이다.

IV. 會議案件

1. 유적의 보존 및 조사지역의 향후 처리방안.
2. 기타사항.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사진 1] 조사지역 전경(현 덕수궁 부근)



[사진 2] 조사지역 전경(옛 경기여고 부근)



[사진 3] 고종황제 아관파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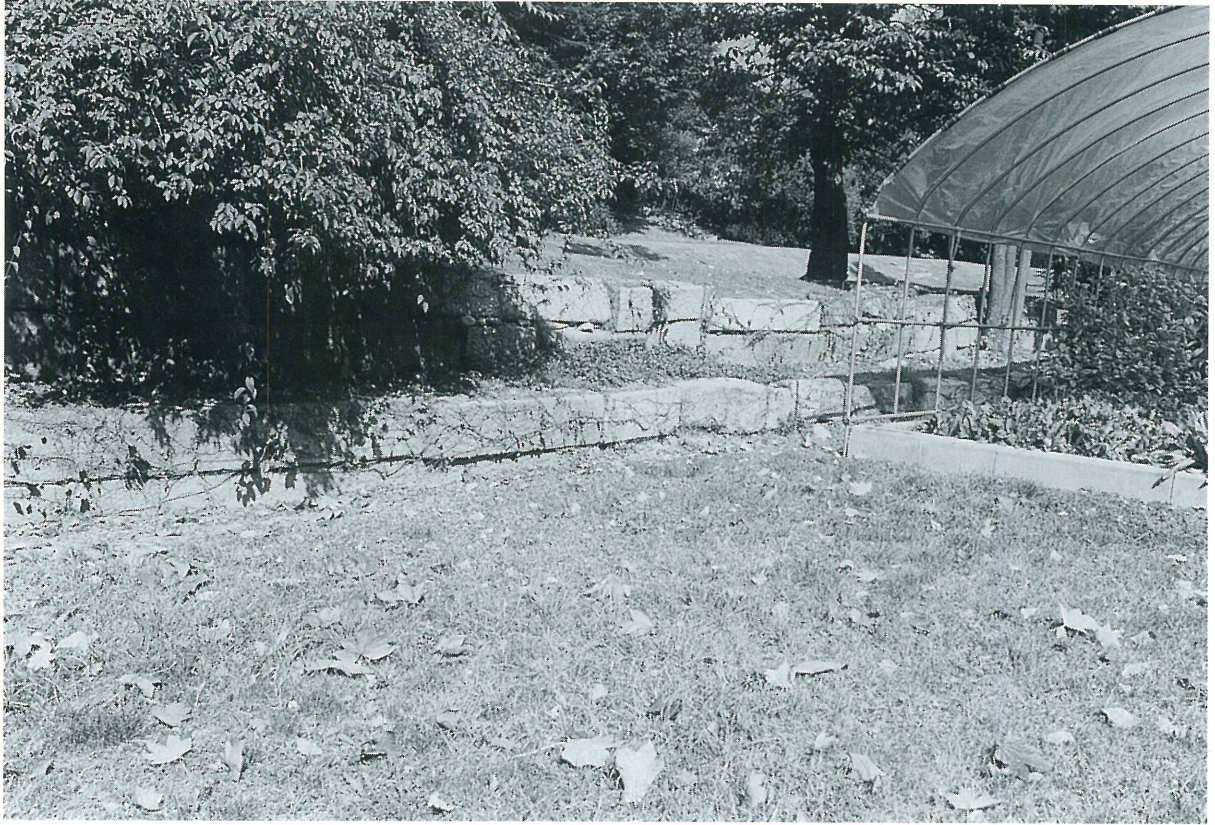
[사진 4] 아관파천길 기와편 노출상태



[사진 5] 아관파천길 문지(북에서)



[사진 6] 아관파천길 문지(남에서)



[사진 7] 현 미대사관저 북쪽 장대석 석축



[사진 8] 현 미대사관저 서쪽 사고석 석축



[사진 9] 부대사관저 옆 석재



[사진 10] 옛 경기여고 교정 회화나무



[사진 11] 구 대사관 관련 건축물 ①



[사진 12] 구 대사관 관련 건축물 ②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지도위원회의 결과보고

1. 지도위원회의 일시 : 2003. 10. 24(금) 15:30

2. 회의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미나실

3. 참석자 :

- 단 장 (공 동) : 김 정 기(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윤 세 영(중앙문화재연구원장)
- 지 도 위 원 : 김 병 모(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교수)
손 병 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최 몽 룡(서울대학교 교수)
- 문헌조사위원회 : 정 영 호(연구위원장, 단국대학교 박물관장)
이 민 원(연구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김 중 현(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 현 장 조 사 팀 : 류 형 균(책임조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남 주(조사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김 경 범(조사보조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연구원)
- 사 무 처 리 : 이 우 승(사무국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실장)

4. 회의안건

- 1) 유적의 보존 및 조사지역의 향후 처리방안.
- 2) 기타사항.

5. 회의내용

□ 김병모 지도위원

덕수궁 주변에 위치하는 (구)미국공사관 등과 같은 근대 건축물에 대한 사진자료 등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나 문화재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면 좋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면 함. 현재 덕수궁 영역을 포함해 외곽지역까지 포함된 항공촬영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옛 덕수궁 영역의 복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손병헌 지도위원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덕수궁 외곽지역에 선원전 등의 전각이 존재했으므로 이들 전각을 둘러싼 담장시설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도면 등 일본측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전각들의 위치비정을 통해 옛 덕수궁의 범위 파악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한제국기 덕수궁의 전체적인 영역을 추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현재 덕수궁의 배치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주변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평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임.

□ 최몽룡 지도위원

덕수궁은 지난 20세기초 이래 열강들에 의해 궁궐의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계속적으로 유적의 파괴가 진행되어 왔음. 1960년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금 대한문은 원래의 위치에서 14m정도 안으로 들어 이견되었고, 서울시청 별관 신축시에도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건축을 함으로써 덕수궁 영역이 훼손됨. 현재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의 경우 궁궐 전체 배치도면, 사진 등을 발굴하여 이에 따라 복원이 진행중인 상태임.(프랑스나 멕시코의 경우 도시에서 중요 건물을 지을 자리에 앞선 시대의 유적이 발굴될 경우 그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사례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덕수궁 역시 옛 덕수궁의 영역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유적 복원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그리고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었으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덕수궁의 명칭도 과거 사용되었던 경운궁으로 바뀌어야 함이 타당함. **현 부지는 미국소유이므로 비엔나협약에 의해 2001년 인근의 캐나다 대사관의 건축을 사전조사도 없이 승인한 상태에서 미국 대사관만 건축을 불허할 근거가 미약함.** 과거 우리 정부는 1984년 한·미양해각서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이격거리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새로 마련 될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건축을 해야 함. 그러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덕수궁의 선원전부지를 인수한다면 옮겨진 선원전을 다시 그 자리에 복원하는 등 덕수궁의 보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결국 미국 대사관의 신축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만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유적을 보존해야 할 것이며, 건축여부는 지표조사단 보다는 국가기관인 외교통상부나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의 협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정영호 위원장

이번 문헌조사는 덕수궁의 전반적인 이해에 관한 첫걸음으로 덕수궁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임. 또한 덕수궁의 변천관련 도면이나 연표 등은 문헌조사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됨. 다만 이제 덕수궁 연구가 시작 단계이며 이번 조사가 한정된 목적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선 옛 선원전 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추후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관련 자료들을 학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 이민원 연구위원

이번 덕수궁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매우 귀중한 문헌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시일의 촉박함 등으로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덕수궁 각 전각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도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임. 이번 조사가 덕수궁 연구에 관한 출발점이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한편 수집된 연구자료의 활용문제, 발굴된 자료의 사장을 방지하는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함. 향후 덕수궁 관련 학술연구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김종현 연구위원

덕수궁 담장이 포함된 전체 배치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음. 이번 문헌조사로 인해 덕수궁 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김정기 단장

덕수궁 관련 문헌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체를 이번 보고서에 수록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추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함.

□ 윤세영 단장

조사지역의 미대사관 건축여부나 대체부지 마련 등은 지표조사단 역량밖의 문제이므로 외교적 사안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국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6. 지표조사단 의견

덕수궁은 조선시대 5대궁의 하나로 현재 사적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궁궐임. 문헌조사연구 결과 미국 대사관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부지에는 선원전·홍복전·홍덕전 등의 진전과 빈전 등 궁궐에서도 특히 신성한 영역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밝혀졌음. 또한 현장조사에서 문지, 장대석과 사고석을 이용한 석축, 옛 덕수궁의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조사되어 궁궐터였음이 확실하므로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임.

2003. 10. 27.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인 쇄 일 : 2003年 11月

발 행 일 : 2003年 11月

편집·발행 : 서울시 중구 정동 1-39번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연합조사단

인 쇄 처 : 도서출판 학술문화사

Tel. 02)854-7997 Fax. 02)862-2111

